

# 韓國貿易(1962~81)의 基本性格과 成就

林 鍾 哲\*

〈目 次〉	
I.	序 言
II.	輸出第一主義의 內容과 性格
III.	輸出第一主義의 成就
IV.	輸出第一主義에 대한 評價
V.	結 言

## I. 序 言

1961년에 수립된 軍事政權은 1948~60년 간에 定着시키려 했던 自由企業原理에 입각한 市場經濟體制를 거부하고 이에 대신하여 行政政府主導下의 計劃的 開發이라는 命令經濟體制를 도입하여 國民경제의 모든 部門의 순환과 성장을 指令에 의하여 調整하고자 企圖하였다. 이러한 政策변화에 依하여 가장 직접적이고도 격심한 영향을 받은 것이 貿易部門이었는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소규모경제국(small country)이어서 自給自足を 이룰 수 없어 무역이 國民경제의 전략부門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自然的 要因이 있었다. 둘째 1953~58년 간에 연평균 269.3백만달러, GNP對比 평균 17.58%에 달했던 無償의 外國원조가 그 主要供與國이던 미국의 국제수지악화를 계기로 1959~61년에는 연평균 222.3백만달러, GNP對比 평균 11.11%로 갑자기 줄어들어 심각한 外換不足을 가져왔고 政策당국으로서 是 시급히 이에 對處해야만 했다는 外生的 要因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技術的 經濟的 要因보다는 政策을 수립, 집행한 權力層의 社會哲學과 이에 근거한 開發戰略이 1962~81년의 韓國貿易의 變化에 좀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影響을 주었으니 그 哲學·戰略이란 富國(plenty/opulence)과 強兵(power)이라는 重商主義的 價値觀<sup>(1)</sup>에 뿌리박은 것이었다. 富國強兵의 기틀은 무역을 통하여 마련할 수 있을 뿐이라는 執權層의 前近代的인 成就動機가 1차적으로 무역부門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國民경제전체에 대하여 엄청난 총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1) J. Viner, *The Long View and the Short*, 1958.

〈表 1〉 國際經濟關係의 推移

	1961	1981	倍率
수출(백만달러)	40.9	21,253.8	519.7
수입(백만달러)	316.1	26,131.4	82.7
수출의존도(%)	1.9	33.5	17.6
수입의존도(%)	15.0	41.2	2.7
차관잔고(백만달러)	20.4	14,364.0	704.1
1인당 수출(달러)	1.59	548.85	345.2
1인당 수입(달러)	12.77	674.83	52.8
1인당 차관잔고(달러)	0.79	370.94	469.5
1인당 외자도입액(달러)	7.85	39.69	5.1
세계수출 중의 몫(%)	0.034	1.166	
세계수입 중의 몫(%)	0.249	1.37	
GNP(經常價格)(백만달러)	2,103	63,351	30.1
GNP(不變價格)(억원)	30,045.8	148,200	4.9
1인당 GNP(經常價格)(달러)	82	1,636	20.0
1인당 GNP(不變價格)(원)	116,610	382,718	3.2

資料：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격과 歪曲을 가져온 근본원인이었다. 그리하여 〈表 1〉에서 보듯 1961년 현재 357.0백만달러에 불과하였던 商品貿易規模는 1981년에는 47,385.2백만달러로 132.7배 이상 커졌고 1인당 貿易額도 13.86달러에서 1,223.7달러로 그 역시 88.3배 가까이 커졌고 세계무역에서의 비중도 0.28%에서 1.27%로 커질 수 있었다. 他國과 비교해도 1962~81년 간의 수출신장율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으며<sup>(2)</sup> 이것이 경제성장의 原動力이 됨으로써 연평균 8.42%라는 그 역시 驚異的인 성장율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sup>(3)</sup> 따라서 한국도 19세기에 있어 工業化를 시도하였던 諸國이 그랬던 바와 같이, 또 貿易과 成長 간의 因果關係가 변화한 20세기 후반에 있어서조차도 소규모경제국이 그러지 않을 수 없는 바와 같이, 「수출을 통한 성장」이라는 古典的, 理論的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온 것으로 評價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출, 工業化와 그에 先行된 技術選擇과 資源配分, 所得分配, 交易條件 등의 20년에 걸친 변화와 그 결과로서의 現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과 그 움직임의 主動力인 政策努力의 本質的 特性을 생각할 때 1962~81년 간의 한국수출은 計量的 分析이 반드시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적극적인 成長寄與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本質에 있어

(2) 1962~81년 간에 있어 오직 리비아만이 978.6배 增加로 한국을 앞설 뿐 홍콩은 31.7배, 싱가포르는 19.4배 증가에 불과했다(IFS 各年號).

(3) 輸出의 成長寄與率은 金光錫博士에 의할 때 1963~70년은 11.9%, 1970~75년은 23.7%, 1955~75년은 18.2%였으며(金光錫, 『韓國工業化배턴과 그 要因』, 1980), 韓國銀行에 의할 때 1970~75년은 23.9%, 1975~78년은 18.6%였다(韓國銀行, 『調査月報』, 第34卷 第9號).

窮乏化成長的인 것이었으며 輸出第一主義 또한 學界 및 言論界의 다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카도流의 比較優位原理에 입각한 開放體系指向的인 自由貿易主義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閉鎖體系指向的인 自給自足主義였으며 스미드, 리카도에 의하여 날카롭게 비판되었던 重商主義와 여러가지 점에서 흡사한 면을 갖고 있다. 스미드, 리카도가 주장한 自由貿易主義는 보통의 資質(ordinary capacity)을 가진 평범한 市民끼리의 市場=交換을 매개로 한 日常的 만남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開放社會(open society)를 위한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비교우위라는 바탕 위에서의 國際分業을 통한 세계적 규모의 協業」이라는 開放體系의 기본원리를 거부하고 全面的 工業化와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가능한 최대한의 自給自足を 지향했던 1962~81년의 한국경제, 그 가장 유력한 수단이었던 무역은 閉鎖社會(closed society) 및 封鎖體系指向的인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미드, 리카도 등 自由貿易論者들의 노력과 理念을 近代化指向的인 것이라고 할 때 1962~81년 간의 輸出第一主義는 近代化를 표방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거부하고 逆行한 反動的 政策 및 理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 II. 輸出第一主義의 內容과 性格

### 1. 貿易의 動因

페티의 법칙은 產業間 뿐만 아니라 產業內에서도 일어난다. 要素移動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生産諸要素는 투자의 限界效率이 높은 生産활동부문으로 1차적으로 投入되며 만일 이 같은 生産활동부문의 資源吸收能力이 매우 커서 투자한계효율을 저하시키는 일 없이 충분히 큰 규모의 生産要素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 같은 要素再配分이 그 生産부문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 기술의 축적,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 유리한 작용을 추가할 수 있게 되면 그 部門에서의 生産은 國內市場을 飽和시키고 輸出剩餘를 가질 만큼 확대된다. 超過供給이 생긴 재화의 輸送費 기타를 포함한 貨幣供給價格이 他國의 같은 재화에 비하여 저렴할 경우 貿易障壁이 없는 한 貨幣供給價格差를 좇아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國內的인 높은 投資限界效率은 對外的으로는 比較優位로 轉換된다. 한편 資源이 流出된 斜陽產業에서는 供給不足이 생겨 세계시장에 대하여 輸入需要를 일으킨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요소이동, 국제적으로 재화이동의 자유가 생기면 무역은 자연스레 발생하고 국내적인 比較優位를 토대로 무역이 전에도 진행되고 있던 特化가 한층 더 진전되게 된다.

이에 반하여 重商主義 특히 콜베르主義(Colbertism)의 경우 貨幣形態의 君主收入을 어떻

계 증대시키느냐 하는 것이 國家政策樹立者의 第一關心事였으며 鑛山이 國內에 없을 경우 金銀은 무역의 결과로서 얻어질 뿐이라고 생각되었다.<sup>(4)</sup> 따라서 비교우위를 가진 輸出産業 基盤이 약하여 出超를 실현시킬 수 없을 경우 국가는 가능한 여러가지 政策手段을 援用하여 出超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 때 그 政策內容은 반드시 潜在的으로 큰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幼稚産業을 육성한다는 것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첫째 比較優位可能性이란 國內的 供給事情보다는 세계시장에서의 去來量의 크기라는 國外的 需要條件을 중시하여 그러한 産業을 선택하여 補助金支給, 要素價格抑壓 등을 통하여 比較優位를 정책적으로 造出하여 輸出能力을 갖게 하거나 혹은 (또는 동시에) 內需를 억제, 희생시키는 飢餓輸出을 강행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둘째 비교우위가 작더라도 外貨節約效果가 큰 産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1950년대에 건설된 製造業 중 國內市場을 飽和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綿織物工業과 木材加工業 정도였고 1962년 현재 54.8백만달러였던 수출총액 중 工產品比重은 27.0%에 불과했다. 1960~62년은 不況의 餘波와 政局不安으로 GNP성장율은 연평균 3.0%, 제조업성장율은 8.0%로 1953~59년의 각기 4.2% 및 13.5%에 비해서도 크게 鈍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의 工產品輸出額이 62년의 14.8백만달러에서 44.9백만달러로 203.4%가 늘어 수출총액의 51.7%를 차지했다는 것은 比較優位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이를 企業人의 輸出意欲(export-mindedness)에서 구하려는 試圖도 있지만 主體的 態도의 이처럼 급격한 변화 역시 팔베르主義的 強制라는 政策變化를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 2. 貿易의 目的

경제적, 心理的 발달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生産활동은 手段價値일 뿐이지 目的價値가 되지 못한다.<sup>(5)</sup> 무역이란 경제활동 역시 다른 목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임은 自由貿易主義와 重商主義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가치를 위한 수단이나 하는 점에 있어 兩者 간의 상이는 현저하다.

리카도流의 자유무역주의가 무역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임은 理論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서나 분명하다. 무역이익은 比較優位에 입각한 國際分業에서 발생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4) A. Gray, *The Development of Economic Doctrine*, 1931. 重商主義者들이 金銀, 國富 및 貿易(差額)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견해에 대해서는 E. Heckscher, *Mercantilism*, 1931 (English tr. 1935), Vol. 2를 볼 것.

(5) 마샬은 食住에서 시작된 욕망이 多樣性(variety), 誘示性(destination)을 거쳐 優越性(excellence)에 이르게 되면 경제활동은 目的價値로 전환한다고 말하고 있다.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890 (8 ed., 1920).

무역이익은 무역에 직접 참여한 兩當事者에게만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一般에게도 여러가지 형태로 직접적으로 歸屬된다.<sup>(6)</sup> 무역이익의 실현, 증진을 통한 一般厚生의 증대가 곧 자유주의무역의 목적이다.

이에 반하여 重商主義貿易은 金銀의 축적이라고 하는 그 역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금은이라는 형태로의 富의 축적은 결코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바뀌 말하면 一般厚生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絕對君主의 政治的目的인 權力과 豊富(power and plenty=富國強兵)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과 풍부는 福祉의 기초로서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國民國家 간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끝베르에 따를 때 「무역은 財政의 源泉이며 제정은 전쟁의 活力素」<sup>(7)</sup>였던 것이다. 무역의 목적이 이처럼 정치적인 것이었으므로 축적된 금은이 權力的 물질적 기반은 되었지만 결코 국민의 복지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증상주의정책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배려한 것은 오직 국가(state)뿐이지 국민(nation)은 아니었다.」<sup>(8)</sup> 그런데 증상주의시대에 있어 국가란 「朕은 국가이다.」라고 한 루이 14세의 말에서 보듯 바로 絕對君主를 말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증상주의적 (금은)축적은 다른 경제주체의 犧牲下에 절대군주의 權力基盤으로서의 富만 추구하는 것이었으니<sup>(9)</sup> 이처럼 국민 대다수의 빈곤 위에 富(=權力)를 構築하려고 한 것이 헉셔가 지적한 가장 근본적인 重商主義矛盾이었는데 이같은 모순이 「국민 대다수의 빈곤 위에 세워진 웅장한 經濟的 構造物을 전복시킨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sup>(10)</sup>

1962~81년의 輸出第一主義가 比較優位産業의 육성보다는 단순한 外換의 取得, 축적을 목적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外換은 초기에는 GNP증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후기에는 防衛産業建設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強兵에 기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6) 헤르드는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石炭(輸出財)과 不變量의 소맥(輸入財) 또는 不變量의 석탄과 더 많은 소맥 또는 석탄과 소맥을 모두 종전보다 더 많이, 혹은 또 석탄과 소맥의 소비량은 종전대로 두고 새로운 第三의 재화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例示하고 있다. R. Harrod, *International Economics*, 1933. 이 밖에도 우리는 석탄 및 소맥의 소비량을 일정하게 두었을 때 생산자에게는 閑暇(leisure)와 소비자에게는 價格下落이라는 經濟的 利益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7) E. Heckscher, *Mercantilism*, 1931 (English tr. 1935), Vol. 1. 마찬가지로 몽끄레띠앙(A. Montchrétien)은 「인간 없이 전쟁하는 것, 봉급 없이 이 인간을 유지하는 것, 租稅 없이 이 봉급을 주는 것, 商業(=무역) 없이 이 租稅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었다. Cf. E. Heckscher, *ibid.*

(8) *Ibid.*

(9) 이 때문에 바이너와는 달리 헉셔는 증상주의 정책목표가 오직 權力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스미드가 權力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목적은 豊富라고 생각한 데 대하여 重商主義는 權力 그 자체가 목적(power as an end in itself)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여 權力과 豊富 두가지가 목적(power and plenty as ends)이라는 주장을 그 후에 내세운 바이너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Cf. E. Heckscher, *ibid.*

(10) *Ibid.*

있어서는 誘示生産=祖國近代化라는 형태로의 富國을 위한 원천이 되었다는 점에서 重商主義的 金銀追求와 성격을 같이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무역정책의 기본은 貿易差額=國際收支黑字보다는 단순한 貿易規模의 확대에 있었다는 것이 중상주의와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무역규모의 확대는 한편으로 보면 리카도流의 貿易利益極大化를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케인즈流의 貿易乘數效果極大化를 위한 수단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선 前者의 경우는 交易條件의 개선 또는 최소한도 그 현상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국무역의 경우 1963~68년에는 100.0에서 123.9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이는 意圖的인 정책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60년대 世界貿易環境이 준 不勞所得이고 1969년 이후는 오히려 크게 악화되어 81년의 84.0으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무역규모확대=무역이익극대화라는 等式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 後者의 경우 역시 케인즈流의 그것과는 다르니 녀시流의 均衡成長戰略<sup>(11)</sup>마저도 당초부터 거부되고 最終消費財產業을 중심으로 한 百貨店式工業化가 國威宣揚目的으로 이루어진 한국경제에서는 前後方聯關效果의 漏出이 너무 커서 무역규모확대=무역승수효과극대화라는 等式이 성립될 수 없었고 오히려 對外依存의 深化만 가져왔을 뿐이었다.

量的 擴大를 중심으로 한 무역정책은 「큰 것은 좋다.」는 權力層의 大艦巨砲主義的, 즉 重商主義的 信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外貨稼得率이 비교적 높았던 60년대 前半에 있어서는 수출의 量的 擴大는 리카도의 또는 케인즈의인 무역정책기준을 충족시켰고 그 결과로서의 外貨純取得도 클 수 있었다.<sup>(12)</sup> 그러나 工產品中心으로 바뀐 輸出의 해마다의 伸張率이 工業成長率을 크게 앞질러 交易條件의 악화<sup>(13)</sup> 및 外貨稼得率의 하락이 시작된 1960년대 후반 이후에 있어 政策當局者는 무역규모의 크기가 한국에 대한 國際的 信認의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信認은 借款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다 유력한 外貨取得의 길을 열어준다

(11)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1955)에 대한 허취만 등 소위 不均衡成長論者에 대한 反批判에서 녀시는 자신의 균형성장론이 결코 百貨店式 工業化가 아니라 前後方聯關效果를 國外로 漏出시키지 않기엔 충분한 규모의 自己完了的 體系의 構築임을 강조하고 있다. Cf. 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1961.

(12) 財務部資料에 의할 때 1962~65년의 外貨稼得率은 평균 73.7%로 그이후의 63.4%(1967~79)보다 높았다.

(13) 1964~73년간에 交易條件은 연평균 1.3%씩 개선되어 왔지만 1974~81년간에는 3.0%씩 악화되어 갔다. 1963년을 100으로 할 때 1963~73년 간의 交易條件指數는 평균 113.9로서 대체로 63년 수준을 웃돌았지만 1974~81년 간은 93.6으로 오히려 밀리고 있다. 또 <表 2>에서 보듯이 交易條件의 改善 또는 유지는 안정된 輸入價格 때문이며 輸出單價上昇率은 國內都賣物價上昇率을 크게 밀돌아 輸出의 낮은 附加價值率 또는 그 덤핑性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이처럼 낮은 輸出單價上昇率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隅谷三喜男 교수의 二重構造論이 있다. Cf. 隅谷三喜男, 『韓國의經濟』.

〈表 2〉 純商品交易條件의 推移

	純商品交易條件	物價指數	輸出單價指數	輸入單價指數
1963	100.0	100.0	100.0	100.0
1968	123.9	186.6	124.8	100.7
1973	112.9	286.6	156.6	138.9
1981	84.0	1421.6	320.8	381.6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67~81년의 韓國工業·輸出基盤 위에서는 수출증대와 交易條件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減少函數的 關係가 성립되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양적 확대만이 강행되고 交易條件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政策努力이 없었던 것, 그리고 外形 아닌 稼得額 중심의 貿易支援體制改編을 學界 일부에서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되었다는 것은 수출→外貨 및 外資獲得→誘示生産施設擴大라는 重商主義的 圖式으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중상주의가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었듯이 輸出第一主義도 市民(citizen)을 위한 무역정책이 아니었다. 一見 이는 국민(nation)을 위한 정책같이 보이지만 그 本質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어서는 政府(government)=權力層과 그 支持圈만을 위한 무역정책이었다. 시민의 이익은 對外的으로는 交易條件變化에 의해 희생되었고 對內的으로는 先建設·後分配라는 共和黨政治의 開發哲學에 의하여 당초부터 무시되었고 분배구조의 계속적인 악화, 對外依存의 深化 그리고 생활환경의 파괴로 시달리었다. 정부와 市民 간의 利害葛藤은 輸出·外資關聯産業部門에서 가장 날카로웠으니 外國人企業에서의 團體行動禁止 등은 그 현저한 것이었다. 1962년 이후의 「祖國近代化」가 연평균 8.4%의 경제성장율과 29.9%의 수출 증가율, 1,636달러의 1인당 GNP와 212.5억달러의 수출이라는 成就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GNP分配에 있어 下位 40%층의 率이 1965년의 19.3%에서 78년의 15.4%로 줄고 그 대신 上位 20%층의 그것은 41.8%에서 46.7%로 커졌다는 貧富分極化現狀과 대비시킨다면 1962~81년의 經濟的 成就 역시 핵서가 지적한 바 「국민 대다수의 빈곤 위에 세워진 脆弱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 3. 政府規制

자유무역주의는 目的指向的 組織이 명령을 통해 마련한 意圖的 秩序, 정부의 「숙달된 손」(skilful hand)<sup>(44)</sup>이 꾸려낸 질서를 거부하고 目的에 구속안된 公正한 行動準則이 낳은 自然

(14) J. Steuart,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 Vols, 1767.

發生的秩序,<sup>(15)</sup> 일체의特惠나 制約이 철폐되고 正義의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市民各自가 자신의 지식과 資本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자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 생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인도한 질서,<sup>(16)</sup> 인간행동의 결과 생긴 것이지만 인간이 의도했던 것이 아닌(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질서,<sup>(17)</sup> 정부의 온갖 強制機能이 平和, 正義, 自由란 3大拒否權(Three Great Negatives)에 의해 有效하게 制御되는 사회질서<sup>(18)</sup>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자유(무역)주의가 생각했던 (세계)시장에서의 交換은 catallaxy<sup>(19)</sup>로서 이는 서로 모르는 남남을 開放社會의 一員으로 연결시켜주는 組織原理라고 信奉되었다. 서로 利害가 다른 남남을 市民社會에 참여게 하는 원리는 權威와 功利의 두 原理이다.<sup>(20)</sup> 功利的인 自愛心은 交換性向을 통해 社會經濟의 行爲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行爲者(agent, man without)와 觀察者(spectator, man within)란 두 측면이 있고 後者에서 연유하는, 三者의 處地에서 諸行爲를 반성하는 능력인 共感(sympathy)이 公正한 競技態度(fair play)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害他的 利己行爲는 共感を 못얻는 결과 그러한 行爲者는 市民社會에서 추방된다.<sup>(21)</sup> 이런 점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이데올로기는 自愛·利己가 他人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다는<sup>(22)</sup> (그 결과 秩序維持者로서의 政府介入이 필요하다는) 증상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날카롭게 대립된다. 이러한 人間像이 곧 原子論的 個人, 즉 자유(무역)주의의 主體的 條件이다.

한편 權威의 原理는 그 客體的 條件, 즉 財產權의 자유, 精神的 自由, 人身의 자유라는 市民社會의 基本自由를 보장하는 制度的 基盤이 되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재산권의 자유였는데 그 내용을 이루는 所有, 契約, 營業 등의 자유에 의해 자유로운 財產의 活動을 할 수 있게 된 市民이 市場에 요구했던 것은 等價交換이며 그 성립을 위한 內部條件은 ① 서로 立場을 바꿀 수 있는 分散的 經濟主體,<sup>(23)</sup> ② 最善이라 생각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15) F.A. Hayek,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1967.

(16)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17) A. Ferguson,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1767 (quoted in F.A. Hayek, *op. cit.*).

(18) F.A. Hayek, *op. cit.*

(19) 이 말의 語源인 히랍어 katallattein은 “to barter,” “to exchange” 이외에도 “to admit into the community,” “to turn from enemy into friend”란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Cf. F.A. Hayek, *op. cit.*

(20) A. Smith, *op. cit.*;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1759; *Lectures on Jurisprudence*.

(21) A. Smith, *op. cit.*

(22) 그 중 한저한 몇을 引用하면 “The profit of one man is the damage of another.”(Montaigne), “No one ever loses without another gaining.” (A. Montchrétien). Cf. E. Heckscher, *op. cit.*

(23) 이는 企業의 自由 중 “what to produce”에 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자유,<sup>(24)</sup> ③ 자신의 생산물인 상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sup>(25)</sup> ④ 雙方의 自由意思의 合致인 自由契約이 바탕이 된 去來,<sup>(26)</sup> ⑤ give and take 原理 위에서의 자유거래<sup>(27)</sup> 등으로서 이런 조건을 보장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이익을 調整하고자 한 마련이 近代私法이었던 것이며 이로써 經濟界에도 法 앞의 平等(isonomy), 法治主義(nomocracy)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등가교환을 보장하는 外部條件은 封建的 土地所有, 前期的 獨占, 國家權力에 의한 強制 등을 철폐하고 豫測可能性의 원리에 입각한 國家權力的 制御였으니 이는 法治主義, 罪刑法定主義의 확립을 통해 보장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증상주의는 官에 의한 철저한 干涉體系로서 출발하였다. 干涉機構의 整備은 1601년 라프마스建議에 따른 商業委員會設置, 리슐리우의 中央行政機構改革에서도 試圖되었지만 루이 14世는 모든 산업활동에 관한 中央集權的 規定을 개정하고 1667~69년에는 산업에 관한 司法·行政을 통합하여 國家支配力을 크게 증대시켰다. 프랑스 產業規制史에서 흔히 지적되는 統制는 그 一半은 國王에 충성을 다하는 방대한 官僚制가 담당했고 나머지 一半은 정부규제의 主要代行者의 慣習을 가졌던 길드의 강화를 통해 수행되었다.<sup>(28)</sup> 이같은 패턴은 1962~81년의 한국경제에서도 그대로 모방되었다.

이러한 制度的 마련 위에서 富國強兵을 위한 規制命令은 거미줄처럼 프랑스 產業을 엮매어 一例로 리용 絹織物工業의 경우 1554년에 21개였던 규제명령은 1667년에는 67, 1737년에는 208로 늘었고 1744년에도 183개였으니 1660~1730년 간에 내리친 규정은 四折版 책 220면에 겨우 수록될 만큼 많았다.<sup>(29)</sup> 爲政者는 法과 行政面에서는 獨創적이었지만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有能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染料比率, 織物의 폭, 經糸數, 道具의 규격까지 규제, 감독하였으니 예컨대 베틀의 바디(reed)는  $1\frac{3}{4}$ 인(= $1\frac{3}{4} \times 45$ 인치)여야 한다는 것까지 명령했던 것이다.<sup>(30)</sup>

이러한 국가규제는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어 規制, 命令에 대한 위반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處罰體系는 가혹하고 광범해졌고 이것이 벌금로탈이라는 또 다른 抵抗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낳았다. 비록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한다는 口實 아래 행하여졌

(24) 이는 "how to produce"와 관련된다.

(25) 이는 "at what price to sell"에 관한 것이다.

(26) 이때 自由契約은 ①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 ② 계약내용을 자유로운 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

(27) 美獨占法에서 特許權 등을 그 자체 不法인 것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利益調整的 契約이 아니라 市場支配的 契約이기 때문이다.

(28) D. North and R.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1973.

(29) E. Heckscher, *op. cit.*

(30) *Ibid.*

지만 규제, 간섭을 통하여 國家는 자신을 위한 거대한 收入源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며 길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規制裝置의 하나로서 이를 장려하면서도 길드가 그 組合員에게 확보해 준 獨占의 特權을 國家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침해, 이용했던 것이다.<sup>(31)</sup>

重商主義의 干涉은 保護貿易과 工業育成이라는 兩大政策으로 구체화되었다. 重商主義理論은 수출이 유일한 所望스러운 經濟去來로서 一國의 利得은 수출을 통해서만 얻어지며 수입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自國의 公業 성장에 기여하는 재화의 수입을 돕고 完製品輸入을 금지하는 것이 무역활동의 모든 임무」(플베르)라고 생각했다.<sup>(32)</sup> 그 결과 ① 工產品輸出을 적극 권장하고 ② 原料輸入關稅를 감면해주고 ③ 原料獲得 및 工產品販賣를 위해 植民地經營을 중시하고 ④ 船舶建造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外國船舶에 噸稅를 부과하고 ⑤ 東印度 및 西印度會社, 北方會社, 레반트會社 등 20여개의 特權會社를 특허하여 무역을 전담하게 하고 ⑥ 高率의 輸入關稅를 부과한다는 保護貿易政策이 탄생하였다.

한편 公業 육성정책에 있어서는 ① 商業委員會의 권고에 따라 絹織物工業, 綴織工業, 유리工業 등을 건설, 조직화하고 ② 國立매뉴팩추어, 王立매뉴팩추어, 特權매뉴팩추어 등 각종 工業企業을 특허 육성하고<sup>(33)</sup> ③ 영국 등 선진국제품에 대하여 量보다는 品質에서 이기려는 政策意圖 및 宮廷의 奢侈的 需要에 副應하려는 意圖에 따라 奢侈品生産이 장려되었고 ④ 이를 위해 외국에서 기술자를 招致하고 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활발히 권장되었다.<sup>(34)</sup>

한편 輸出과 그 基盤인 工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低賃金 및 低穀價政策이 채택, 강행되었다. 특히 노동은 다른 생산요소와는 그 공급조건이 다르다는 데 착안하여 輸出規模의 최대한 擴大를 위해서는 賃金의 최대한 切下가 필요하며 임금절하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므로 낮은 實質賃金은 國家利益에 합치된다는 소위 重商主義勞動學說(mercantile labor doctrine)<sup>(35)</sup>이 주장되었다.

低物價政策을 통하여 외국보다 製造原價를 낮춤으로써 工產品輸出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政策當局은 高輸出關稅와 복잡한 輸出許可節次에 의해 小麥輸出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등

(31) *Ibid.*

(31) *Ibid.*

(32) *Ibid.*

(33) 國立매뉴팩추어는 國王이 소유하며 官吏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었으며 王立매뉴팩추어는 民間企業이지만 정부의 特許權에 의해 설립되고 下賜金, 補助金, 生産獎勵金 등이 지급되었으며 特權매뉴팩추어는 王權에 의해 認可되고 企業家에게 獨占이 허가되었다.

(34) drop box 및 flying shuttle를 발명한 John Kay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35) E. Heckscher, *op. cit.* 1501~1700년 간의 프랑스勞動者の 實質賃金趨勢를 보면 1501~10년을 100.0으로 할 때 1550년에는 60.5, 1600년에는 42.1, 1650년에는 57.9, 1700년에는 52.6이었다. Cf. D. North & R. Thomas, *op. cit.*

시에 국내적으로도 他行政管區로의 搬出을 금지하는 등 소맥거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소맥가격하락을 야기시켜 農業停滯, 農民貧困의 근원적인 動因을 만들었다. 여기에 宮廷의 사치, 계속되는 전쟁을 위한 戰費調達, 輸出增大와 工業育成을 위한 財政補助 등에 의해 해마다 가증된 不合理하고 과중한 租稅體系가 派生的 原因으로 추가되어 農村解體를 가속화시켰다. (36)

쿠데타로 집권한 軍事政府와 그 後身인 共和黨政權은 「民間人的 자유와 創意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基幹部門과 그 밖의 주요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誘導政策을 쓰는 指導받는 資本主義體制」의 수립을 기본목표로 삼고 「工業化를 통한 산업의 近代化라는 우리 경제의 궁극적인 進路」를 재촉하기 위하여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가장 큰 당면과제로 내세웠다. (37) 1961년 5월 16일 權力을 장악한 그들이 68日만인 7월 22일에 5個年 綜合計劃案을 발표한 데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38) 그러나 비록 軍事政權→共和黨政權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또 최초로 실천에 옮겨지기는 하였지만 61년 7월 22일에 확정, 발표된 제 1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그들의 政治哲學, 經濟理念을 구체화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것과는 정반대의 이데올로기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1958년 復興部 産業開發委員會가 한국인의 손으로 처음 經濟開發 3個年計劃(試案)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대내적으로는 50년대 低成長과 貧富分極化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成長과 均衡에 대한 욕망, 대외적으로는 1955년 반둥會議에서 시작, 61년의 벨그라드宣言과 62년의 카이로선언, 그리고 끝내는 제 1회 UNCTAD총회 후의 77그룹(39)에 의해 채택된 「國際貿易의 一般原則」에 구체화된 經濟自立과 國家的 開發計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試案은 4.19革命 이후 民主黨政權에 의해 5個年計劃으로 변형되는 가운데 平等主義的인 요소가 더욱 加味되었다. 이러한 내용과 성격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962년에 軍事政權이 서둘러 실시하게 된 것은 아델만(I. Adelman)이 교묘히 지적했듯 당시 그들의 敵對勢力이던 「學生들과 知識人 사이에 그 政治的 基盤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

(36) 케네는 「농촌이 不仁에 빠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工業(사치품제조업)에 고용되고 있다. 製造原價나 加工賃을 외국보다 싸게 하기 위하여 小麥價格을 인하하고 있다. 長官(Colbert)은 富의 源泉 그자체를 해쳐 가면서까지도 手工業의 富를 만들어내오자 하여 결국 농업국민의 全 經濟制度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Cf. F. Quesnay, 『ケネ—全集』(日譯).

(37) 黃炳岐, 『韓國의 工業經濟』, 1966.

(38) 1960년 3월 15일 완료된 경제개발 3개년계획 試案을 인수한 民主黨政權은 울페(C. Wolfe) (1961년 3월 3일 來韓, 4월 3일 離韓) 등의 諮問을 끝으로 5개년계획으로 이를 바꾸었고 軍事政府는 7월 22일 이를 확정 발표하였다.

(39) 당시는 75개국이었다.

이 된다.]<sup>(40)</sup>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民生苦解決을 주된 口號로 내세운 軍事政權은 62년의 凶作으로 그 해 成長率이 54~61년 평균인 4.0%에도 크게 못미치는 2.2%에 이르자 즉각 修正作業을 시작, 목표성장율을 7.1%(연평균)에서 5.1%로 引下調整하였지만 아델만의 지적대로 그들의 손에 의한 이 修正計劃에도 그들은 충실하지 않았다.<sup>(41)</sup>

첫째 그들은 「社會經濟的 惡循環의 是正」이란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開發哲學에 同調할 수 없었고 더구나 이를 위한 실천수단인 國民經濟의 불균형시정(分配的 正義의 실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均衡成長戰略), 技術振興(人間資本優先的인 內包的 成長戰略)을 지지할 수 없었고, 둘째 연평균 5.1% 또는 7.1%란 낮은 成長目標率로 그들의 강력한 成就動機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따라서 1963~65년 사이에 모든 反對勢力 및 周邊的 支持勢力을 제거 또는 제어하며 1人政治體制가 확립되고, 한 때 求心力作用을 했던 民族的 民主主義가 그 無內容성과 또 졸속한 韓日條交로 파산하게 되자 50년대 중엽부터 광범한 人口 속에 지지기반을 얻어갔던 工業化, 西歐化 또는 近代化理念을 祖國近代化라는 重商主義的 國民國家建設(nation state building) 이데올로기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이 「工業化된 근대국가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며 「전체의 이익이 특수한 이익에 우선하며, ... 국가는 국민의 경제생활보장 및 자유의 향유를 위하여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나 그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42)</sup>고 한 데서 보듯 「그들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오직 하나의 존재는 국가이었다. 국가는 하나의 특출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관심은 그 밖의 모든 국가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국가의 건설을 第一義로 삼았고 通貨政策的, 保護主義的 기타 經濟政策的인 諸方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되었다.»<sup>(43)</sup> 그리고 이같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에서 대통령은 「도시건설도 직접 살피며 농촌의 경지정리도 직접 나가서 하고 山間의 造林에도 앞장서기 全天候農地造成에도 힘을 아끼지 않고 漁業前進基地나 공장건설에도 부지런히 찾아다니 그 進度까지도 격려하는」<sup>(44)</sup> 干涉主義的 國家 그 자체를 구체화시킨 존재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주의, 또는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간섭은 오늘날 西歐福祉資本主義國家에서 볼 수 있는 干涉主義體系와는 전혀 다른 重商主義的<sup>(45)</sup> 즉 前近代的 또는 近代逆行的인

(40) I. Adelman, ed., *Practical Approaches to Development Planning*, 1969.

(41) *Ibid.*

(42) 朴正熙, 『우리 民族의 나간 길』, 1962.

(43) E. Roll,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3 ed., 1954.

(44) 大統領秘書室,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1975) 중 內表紙 뒷면에서 引用.

(45) "Mercantilism was a doctrine of state intervention in economic life, of state interventionism of a special pattern, and with some special objectives, in sharp contrast with some present-day system of interventionism such as socialism." (J. Viner, "Mercantilism," in *International*

성격의 것이었으며 그 때문에 5.16~共和黨創黨期間에 그 民族主義的, 國家干涉主義的 外樣에 동조하여 참여하였던 民族主義的 右派, 社會主義的 左派, 強權的 計劃主義者 중 처음의 두 部類에 속하는 사람들의 離脫이 1962~65년 간에 두드러졌던 것이다.

叙上한 경위와 意圖에 의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全面的 干涉裝置를 만든 軍事政權→共和黨政權의 至上目標가 국민이 아닌 국가를 위한 權力과 豊富 즉 重商主義的 富國強兵이었음은 5.16과 동시에 그들이 내세운 公約 중 내용있는 부분 즉 4項의 「國家自立經濟의 再建」 및 5項의 「國土統一·勝共對決을 위한 實力培養」에서도 窺知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같은 국가목적실현을 위한 광범한 干涉體系를 수립해가면서 그들은 그 역시 중상주의 경제정책 중 하나였던 모든 산업의 보호육성 즉 全面的 保護主義(solidarity protectionism)를 포괄하였다. 工業과 大企業 뿐만 아니라 農林水產業 또는 모든 中小企業에 대한 保護有成策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한번도 實效있게 추진된 일이 없었으니 그것은 그들의 經濟政策樹立의 眞意가 富國強兵의 목적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의 排他的 優先建設 즉 重化學工業化에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산업활동은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手段價値로서만 評價되고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수단 중에서도 현저한 것이 農業과 貿易=輸出產業이었으니 輸出이 아니라 重化學工業建設投資가 1962~81년 간의 韓國經濟發展을 위한 엔진으로서의 구실을 해왔던 것이다. 工業化가 輸出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輸出增大=外換取得이 重化學工業化를 위한 수단으로 酷使되었으며 따라서 1962~81년의 經濟的 變貌가 비교우위산업으로서의 最大限特化를 통한 國際分業體制에의 參加, 貿易利益享有에의 參與를 위해서가 아니라 國威宣揚의 百貨店式 重化學工業化에 의한 對外依存的 深化라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962~81년 간에 製造業부문에 동원된 投資總額은 1975년 不變市場價格으로 103,330억원이었고<sup>(46)</sup> 그 중 重化學工業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62.6%에 해당하는 64,633억원이었다. 이를 1962~71년과 1972~81년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

(Encyclopaedia of Social Sciences, 1968.)

(46) 經濟企劃院資料에 의할 때 1971~81년 간의 투자총액은 제조업의 경우 1975년 不變市場價格으로 총 83,970억원이었고 그것이 輕工業部門에 29,630억원(35.3%), 重工業部門에 37,060억원(44.1%), 化學工業部門에 17,280억원(20.6%), 도합 重化學工業部門에 54,340억원(64.7%)이 배분되었다. 1962~70년 간의 製造業部門別 投資總額은 이용할 수 있는 資料가 없으므로 ① 1971~81년 간의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의 生産額增加絕對規模를 구하고 ② 이에 대한 각 부문의 總投資의 비율을 적용한 결과 ③ 1962~70년간의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의 生産額增加絕對規模를 구하여 ④의 比率를 적용한 결과 ④ 輕工業部門에서, 9,414.1억원, 重化學工業에서 10,686.6억원의 投資所要額을 산출하고 ⑤ 이 部門別 投資比率를 1962~70년 간의 製造業投資總額 19,360.3억원에 곱하여 重化學工業 10,292.9억원, 輕工業 9,067.4억원의 投資規模를 導出하였다. (計算은 모두 1975년 不變市場價格에 의한.)

〈表 3〉 製造業成長推移

(單位：%)

	1953	1956	1959	1962	1965	1968	1971	1974	1977	1981 <sup>P</sup>
제조업(평균)	32.8	59.0	77.4	100.0	156.7	288.8	500.3	883.3	1407.4	2017.3
경공업(평균)	37.5	66.7	85.0	100.0	139.8	227.1	381.9	611.4	906.8	1212.0
중화학공업(평균)	20.3	38.0	56.7	100.0	202.8	456.2	822.1	1622.1	2767.8	3966.1
식료품공업	38.4	76.6	96.6	100.0	150.5	233.6	362.1	486.1	658.8	948.5
섬유·의복공업	33.5	67.5	89.0	100.0	123.2	204.8	375.7	758.9	1065.6	1431.6
가죽·혁제품공업	47.5	85.4	83.4	100.0	114.5	167.0	305.1	723.6	1556.6	1378.6
나무·가구공업	45.6	83.7	95.9	100.0	137.9	318.3	431.6	552.1	848.9	707.2
고무공업	29.6	36.7	97.3	100.0	163.1	242.4	363.1	832.0	1461.0	2236.5
플라스틱공업	9.9	37.8	73.3	100.0	158.4	675.5	2153.9	2345.3	5472.6	4404.9
1차철강공업	6.0	12.2	43.1	100.0	177.8	353.8	644.7	2251.6	3638.6	7353.7
석유공업	—	—	—	1963=100.0	2451.1	3927.1	15336.6	17473.3	27419.8	28402.5
기계공업	20.9	35.4	41.0	100.0	106.3	148.1	159.0	377.7	810.7	955.7
전기기기공업	12.2	27.9	43.0	100.0	195.3	510.6	1136.0	4337.7	8223.7	13496.6
수송기기공업	22.9	46.7	54.2	100.0	167.1	470.6	485.1	1199.6	2118.1	3327.3

資料：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表 4〉 重化學工業의 比重

(單位：%)

	수출(A)	생산(B)	투자(C)	A/B	A/C
1962~66	22.8	30.0	53.2	76.0	42.9
1967~71	14.4	35.9	53.2	40.1	27.1
1972~76	30.5	44.9	59.2	67.9	51.5
1977~81	42.1	53.5	69.5	78.7	60.6
1962~81	27.4	41.1	62.5	66.7	43.8

資料：經濟企劃院

체의 53.0%인 10,474억원에서 64.8%인 54,13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중화학공업편중적인 투자로 말미암아 중화학공업의 생산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니 1962년을 100으로 할 때 不變市場價格으로의 生産額은 1981년 현재 제조업평균이 2,017.3, 경공업이 1,212.0인 데 반하여 중화학공업은 3,966.1로 경공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제조업생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도 經常市場價格基準 1962~71년의 33.0%에서 1972~81년의 49.2%로 커져 1962~81년을 통한 그 比重은 평균 41.1%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건설한 重化學工業은 前後方聯關效果의 國外漏出을 극소로 하는 自己完了的인 패턴으로 比較優位를 임두에 두어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加工의 最終段階産業을 鐵綱, 輸送機器, 電氣器機, 精油, 石油化學, 基礎化學, 電氣銅, 알루미늄 등을 위시한 非鐵金屬工業 등 重化學工業의 모든 분야에 걸친 百貨店式的 것이었

〈表 5〉 主要製品の 自給率

	1962			1978		
	內需(%)	生産(%)	自給率(%)	內需(%)	生産(%)	自給率(%)
石油化學	140	17	12.1	2,690	1,557	57.9
石油 <sup>(1)</sup>	( ' 64) 7,435	4,843	65.1	165,087	167,028	101.2
질산	1,394	—	0.0	29,544	18,560	62.8
황산	8,347	8,307	99.5	1,274,364	1,525,364	119.7
소다灰	( ' 67) 33,034	—	0.0	196,786	189,000	96.0
化學肥料	( ' 63) 346,969	44,893	12.9	915,000	1,349,000	147.4
合成樹脂	( ' 64) 14,300	4,000	30.0	497,100	425,549	85.6
鐵鋼	262	142	54.2	6,550	6,853	104.6
電氣銅	( ' 67) 5,154	3,438	66.7	68,000	57,000	83.8
알루미늄	11,411	—	0.0	101,123	18,549	18.3
工作機械 <sup>(2)</sup>	( ' 63) 4.2	1.7	40.5	( ' 77) 279.3	50.0	17.9
産業機械 <sup>(2)</sup>	( ' 70) 208.0	26.9	12.9	1,359.2	298.7	22.0
電氣器機 <sup>(3)</sup>	14,953	11,128	74.4	585,665	438,500	74.9
電子製品 <sup>(2)</sup>	( ' 68) 76.5	56.1	73.3	1,976	2,271	114.9
船舶 <sup>(4)</sup>	7,904	4,636	58.7	976,707	775,863	79.4
自動車 <sup>(5)</sup>	1,777	1,777	100.0	130,122	156,418	120.2
시멘트	977	970	99.3	14,496	15,733	108.5
化學纖維	50,416	8,165	16.2	42,968	426,895	993.5
綿絲	50,318	52,503	104.3	82,906	300,552	362.5
毛紡絲	3,477	3,494	100.5	54,955	142,520	259.3
綿布 <sup>(6)</sup>	126,086	135,993	107.9	68,608	559,705	815.8
毛織物 <sup>(6)</sup>	7,922	10,744	135.6	45,686	66,373	145.3
고무靴類 <sup>(7)</sup>	63,633	63,797	100.3	69,000	289,000	418.8
합판 <sup>(8)</sup>	183,495	283,775	154.6	2,445,606	6,880,832	281.4

註：(1) 천bbl, (2) 百萬달러, (3) 百萬원, (4) GT, (5) 臺, (6) km, (7) 千켄레, (8) 천S/F  
 資料：韓國産業銀行, 『韓國의 産業』

다. 그러면서도 工業化의 方向 및 速度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戰略的인 産業인 機械工業 그 중에서도 第一次 生産財工業은 〈表 3〉 및 〈表 5〉에서 보듯이 가장 그 成長速度가 늦었다. 그 뿐더러 重化學工業에 대한 投資도 經濟的 效率을 고려하지 않은 全面的 建設政策에 따라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自給自足を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예컨대 自動車工業과 같이 1978년 현재 120.2%의 自給率을 실현하고 있는 산업도 그 생산규모는 고작 156.4천대(小型乘用車의 경우는 85.7천대)로 年産 1백만대라는 最適規模에 크게 못미친 채 3社가 亂立하고 있다.

이처럼 保稅加工型 重化學工業建設이 진전되어 제조업생산의 過半을 넘게 되자 自己完了의 重化學工業化를 추진했을 경우 기대될 수 있는 投入財輸入의 감소 및 消費財輸入의 증

대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그 정반대 현상이 초래되었다. 用途別分類에 따른 輸入構造를 보면 1964년 현재 식료 및 직접소비재 17.2%, 工業用原料 63.7%, 資本財 17.7%, 非耐久消費財 0.4%, 耐久消費財 1.0%이던 것이 1981년에는 식료 및 직접소비재가 11.3%로 5.9%포인트 줄었음에 비하여 工業用原料는 62.2%로 1.5%포인트 밖에 줄지 않았으며 資本財輸入이 23.6%로 크게 늘었고 비내구소비재는 0.5%로 0.1%포인트, 耐久消費財가 2.4%로 1.4%포인트 늘고 있을 뿐이다. 해마다의 특수한 사정을 捨象하기 위해 1964~68년 평균과 1977~81년 평균을 보면 식료 및 직접소비재는 12.6%에서 8.5%로 4.1%포인트 줄어든 대신 公業용원료는 60.0%에서 60.3%로 0.3%포인트가 오히려 늘었고 重化學工業化의 계속 추진을 반영하여 資本財輸入의 비중이 25.0%에서 27.8%로 2.8%포인트 늘고 非耐久消費財는 0.4%로 不變이고 耐久消費財가 2.1%에서 3.0%로 0.9%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비록 重化學工業品이 수출에서 담당하는 몫이 1964~68년의 10.2%에서 1977~81년의 37.6%로 크게 늘기는 하였지만 重化學工業化를 위한 방대한 輸出需要를 支辨할 外貨를 稼得한다는 무거운 부담이 1962년의 73.1%에서 1981년의 43.2%로 줄어든 輕工業部門(1978년 不變價格으로의 生産額基準)에 가해졌고 國內外的인 輸出條件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重化學工業化에 필요한 外資를 확보하기 위하여 貿易, 關稅, 外換의 모든 측면에서 갖가지 輸出督勵策이 강구되는 한편 輸出供給價格의 低廉化를 위하여 철저한 低貨金政策이, 그리고 低貨金の 기초인 低生計費를 위하여 穀類를 비롯한 生必品的 農產物價格의 억제 및 輸入糧穀의 덤핑 등이 조직적으로 강구되었다. 1962~81년간에 강구된 주요한 輸出促進策을 보면 다음과 같다.

### 貿易政策

- 1962. 3 通商振興法 제정
- 1962. 6 貿易振興公社 설립
- 1964. 1 수출진흥종합시책
- 1965. 2 수출산업육성자금 설치
- 1966 輸出振興擴大會議 제도화
- 1967. 7 外貨貸付方式에 의한 輸出産業施設財輸入의 支援
- 1968. 2 新規輸出入業許可要件을 輸出信用狀 30만달러 이상 받은 자와 發行資本金 1억원 이상인 자로 대폭 강화
- 1969. 1 輸出保險法 시행
- 1970. 12 內國輸出入業者에 대한 國產原資材供給도 輸出實績으로 인정



- 1971. 11 國產代替可能品目 및 不要不給品 60개를 대상으로 한 輸入抑制 2段階措處 발표
- 1972. 6 輸出用原資材의 對應輸出履行期間을 現行 4개월에서 6개월로 2개월 연장
- 1973. 6 輸出自由地域內로의 輸出入物品搬入節次를 간소화
- 1974. 3 靑色業體要件을 완화하여 輸出入業者의 靑色, 白色, 黃色, 赤色카드의 區分基準을 개정
- 1975. 5 綜合貿易商社制 도입
- 1976 企業의 海外進出 촉진
- 1977 主要原資材의 輸入金融制度 신설
- 1978 短期輸出支撥金融 강화
- 1979. 10 輸出保險料率 인하
- 1980 수입자유화의 폭을 조정하여 이를 감축
- 1981. 6 造船工業育成計劃 확정
- 1981. 6 특별증인제도 간소화 등 수출지원체제 개혁, 강화

**外換政策**

- 1962. 1 外國換管理法 및 施行令 제정
- 1962 4, 7, 12 輸出金利 새차례 引下
- 1964. 5 單一變動換率制 도입
- 1965. 3 外換市場換作基金制 실시
- 1966. 10 先輸出金融制 도입
- 1967. 6 元貨輸入金融取扱規程 제정
- 1968. 3 外換管理規程 대폭 개선
- 1970. 1 輸出用原資材輸入에 대한 金融制限 철폐
- 1971. 1 輸出支援金融事後管理 강화
- 1972. 3 輸出入金融을 통합
- 1973. 9 輸出準備資金管理指針 개정
- 1974. 2 外貨貸出金利 流動化
- 1975. 2 觀光業體를 輸出業體와 동등 대우
- 1977 外貨貸付 및 延拂輸出支援 확대
- 1978. 1 原資材輸入金融을 확대하고 特別外貨貸出
- 1980. 1 中長期延拂輸出 강화

1980. 1 換率引上 및 變動化

**關稅政策**

1961. 8 國內消費輸入需要抑制를 위하여 臨時特別關稅法 제정

1961.12 關稅率 개정

1965. 3 關稅의 代置免稅制 신설

1968. 3 現行特惠稅法施行要領을 폐지하고 새로운 要領을 발표

1970. 1 現行關稅減免對象을 대폭 축소

1971 關稅廳의 발족

1973. 3 臨時特別關稅法 폐지, 臨時輸入附加稅法 제정

1975. 7 關稅還給制 실시

1976 實效關稅率을 76년의 5.5%에서 81년까지 8.1%로 인상하기로 결정

1976 關稅減免對象의 擴大調整

1977 定額還給制度 확대

1978 彈力關稅制度 보완

1979. 2 關稅減免對象品目を 235개로 확대

1980. 2 定額還給品目を 재 확대

1981 수출용원자재의 關稅率引下

**III. 輸出第一主義의 成就**

**1. 輸出貿易**

1962~81년 사이에 한국의 수출무역은 54.8백만달러에서 21,253.8백만달러로 387.8배 이상 커졌다. 이는 經常價格달러기준 연평균 37.7%, 1975년不變 元貨價格 기준 29.9%라는 빠른 템포로의 輸出伸張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는 0.03%에 불과하던 세계수출에서의 웨어가 1982년에는 1.17%로 커질 수 있었다. 한편 1962년에 421.8백만달러였던 輸入은 26,131.4백만달러로 62.0배가량 커짐으로써 輸出入比率은 1962년의 100:769.7에서 122.9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貿易赤字의 절대액은 367.0백만달러에서 4,877.6백만달러로 13.3배 정도 오히려 커졌다. 輸入增加率은 不變價格으로는 연평균 19.1%, 經常價格으로는 27.4%로서 모두 輸出增加率을 크게 밀돌고 세계수입에서의 웨어는 1962년의 0.25%에서 1981년에는 1.37%로 커졌다.

1962~81년 간의 급속했던 수출증가는 重商主義의 輸出드라이브의 強化라는 國內的 要因

〈表 6〉 輸出入增加率

(單位: %)

	輸 出		輸 入	
	不 變 價 格	經 常 價 格	不 變 價 格	經 常 價 格
1962~65	41.0	44.2	14.6	13.2
1966~73	37.6	45.3	28.2	33.9
1962~73	38.7	45.0	23.7	27.0
1974~81	16.6	26.8	12.1	28.0
1962~81	29.9	37.7	19.0	27.4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表 7〉 韓國貿易의 輸出入彈性值

輸出彈性值	經常價格基準			不變價格基準		
	세계수입 증가율	한국수출 증가율	한국수출 탄성치	세계수입 증가율	한국수출 증가율	한국수출 탄성치
1962~65	8.8	44.2	5.0	7.9	41.0	5.2
1966~73	15.2	45.3	3.0	9.2	37.6	4.1
1974~80	20.6	27.6	1.3	3.9	16.2	4.2
輸入彈性值	세계수출 증가율	한국수입 증가율	한국수입 탄성치	세계수출 증가율	한국수입 증가율	한국수입 탄성치
1962~65	8.7	13.2	1.5	8.0	14.6	1.8
1966~73	15.6	33.9	2.2	9.1	28.2	3.1
1974~81	17.6	28.0	1.6	3.3	12.1	3.7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IMF, IFS, 年報 및 1982년 7월호

에 기인하는 바가 컸음은 물론이나 세계무역의 活況이라는 國外的 要因의 작용도 컸었다. 즉 1952~61년 간에 세계무역은 輸出에 있어 연평균 名目價值基準 4.59%, 實質價值基準 3.78%씩 증가하였고 輸入의 경우 각기 4.15% 및 5.88% 증가한 데 반하여 1962~81년 간에 있어서는 名目額으로의 세계수입은 연평균 14.98%, 實質額으로의 그것은 6.68% 증가하였으며 세계수출 역시 名目的으로는 연평균 15.04%, 실질적으로도 6.57%씩 증가하는 活潑相을 보였다. 이같은 세계무역의 活況이 우리의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며 이는 1962~80년 평균 3.27이라는 높은 輸出彈性值로 반영되고 있다. 다만 經常價格基準 輸出彈性值가 1962~73년의 3.6에서 1974~80년의 1.9로 꾸준히 작아지고 不變價格基準으로의 그것 역시 4.4에서 4.2로 작아지고 있는 반면 輸入彈性值는 不變價格으로는 2.7에서 1974~81년의 3.7로 1포인트 커진 데 반하여 經常價格基準으로 2.0에서 1.6으로 0.4포인트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한국무역이 實質적으로 輸入의 彈力性을 잃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輸出은 그 彈力性을 잃어가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表 8〉 輸出構造(性質別 分類)

(단위 : %)

	식료품·직접소비재	원 연 료	경 공 업 품	중화학공업품
1964~65	19.4	20.7	48.5	11.5
1966~73	11.0	8.6	66.4	14.0
1964~73	12.6	11.0	62.8	13.6
1974~81	8.6	3.4	53.6	34.3
1964~81	10.9	7.6	58.7	22.8

資料 : 貿協, 『貿易動向』

이러한 수출증대의 原動力이 되었던 것은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1962~81년의 工業化過程에 있어 投資配分面에서 크게 소의된 輕工業이었다. 즉 性質別 分類에 따른 輸出商品構造를 보면 식료 및 직접소비재의 비중은 1964~81년을 통하여 10.9%였지만 1964~73년의 12.6%에서 1974~81년의 8.6%로 3분의 1가량 줄어들고 原燃料 역시 11.0%에서 3.4%로 그 비중이 저하되어 전기간을 통한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輕工業品은 평균 58.7%에 달하고 있다. 물론 重化學工業品의 수출비중은 1964~73년의 13.6%에서 1974~81년의 34.3%로 크게 늘고 전기간을 통한 평균비중도 22.8%에 달하고 있지만 輸出率을 기준할 때 그 負擔率은 1974~81년에 있어서도 輕工業의 66.2% 수준에 불과하며 1964~81년을 평균하면 5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sup>(47)</sup>

1962~81년 간의 수준을 要素集約度를 기준한 商品構造에 의해 보면 1961년에는 自然資源集約財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87.3%에 달하였던 것이 1971년의 18.0%를 거쳐 1981년에는 9.0%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대신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의 비중이 1961년의 5.8%에서 1981년의 67.9%로 커졌다가 1981년에는 현저히 줄어 48.3%로 하락하였고 그 대신 勞動集約的 重化學工業製品의 비중이 3.9%에서 6.7%를 거쳐 10.7%로 커짐으로써 勞動集約財의 수출비중은 1961년의 9.7%에서 1971년의 74.6%를 거쳐 1981년에는 59.0%를 접하고 있으며 資本集約財가 1961년의 3.0%에서 1971년의 7.4%를 거쳐 1981년에는 32.0%로 급격히

(47) 1964~81년 간에 있어 輕·重化學工業比率(經常價格으로의 生産額 기준)과 輸出에 있어서의 輕·重化學工業製品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生産額에 대한 重化學工業의 輸出負擔의 크기는 輕工業의 그것을 기준할 때 다음과 같다(資料 : 〈表 8〉 및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重化工生産(%)	重化工輸出(%)	輸 出 率(%)
1964~65	31.0	11.5	37.1
1966~73	36.2	14.0	38.7
1964~73	35.1	13.6	38.7
1974~81	51.8	34.3	66.2
1964~81	42.6	22.8	53.5

〈表 9〉 年度別 輸出主宗商品

(단위 : 천달러)

	1961	1966	1971	1976	1981
001 배 지	2,464				
0311 선 어	1,274	7,669	33,760	149,333	501,047
0312 건 어	2,502				
0313 패류·연체동물			21,790		
0548 김		8,710			
2613 생 사	2,849	11,632			
281 철 광	4,252				
2839 중 석	4,498	9,536			
2919 돈 보	1,070				
2929 한 친	1,142				
3214 무 연 탄	2,209				
6291 고무타이어				128,937	
631 베니어합板	1,271	29,880	124,274	337,091	
652 면직물		10,121	31,004		
6531 견직물				175,098	
6532 합섬직물				214,533	987,051
674 강관		7,126	20,100	158,224	564,354
7241 TV수상기					498,388
7353 선박					1,411,402
84111 남자용의의			43,211	425,144	925,487
84112 여자용의의				181,082	605,457
84113 남자용내의		7,266	63,735	269,434	514,997
8414 편물제품		15,978	132,921	619,979	1,152,971
8510 선박류			37,436		1,024,101
89995 가발		12,022	69,866		
총수출에 대한 비율(%)	57.4	47.9	54.1	34.5	38.5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10대輸出主宗商品에 의해 우리나라 輸出構造의 특징을 보면 1961년에는 工產品으로서 베니어합板 뿐이던 것이 66년에는 鋼板을 포함한 6개 工產品이 主宗商品에 끼었고 1976년 이후는 鮮魚類만이 10대輸出品目에 끼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工產品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1년에 있어서조차도 重化學工業製品은 船舶類 1,411.4백만달러(총수출의 6.6%), 鋼板 564.4백만달러(2.7%) 및 TV受像機 498.4백만달러(2.3%)로서 그 비중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매우 微微하다. 이같은 사실을 日本의 경우 수출의 三大主宗商品이라는 鐵鋼, 船舶, 自動車가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비시켜보면<sup>(48)</sup> 1962년 이후의 工業

(48) 日本의 경우 수출의 三大主宗商品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자료: 『日本統計年鑑』).

化 및 그 原動力이 된 輸出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國際分業에의 參與란 開放體系志向의인 것이 아니라 重商主義的 全面的 工業化主義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지 못한 채 內需不足으로 海外에 投賣되고 있다는 것을 看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끝으로 用途別 分類에 따른 輸出商品構造를 보면 食料품 및 직접소비재의 수출비중은 1964~73년의 평균 8.33%에서 1974~81년의 7.35%로 약간 低下되고 있는데 이는 魚介類의 수출이 꾸준한 데(1964~73년 평균 4.98%에서 1974~81년의 4.78%, 以下 같음) 기인한다. 工業用原料는 같은 기간 중 10.52%에서 3.01%로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는 시멘트工業과 肥料工業의 過剩投資로 말미암아 시멘트(0.61%에서 1.30%로 증가), 化學肥料(0.46%→1.07%)의 수출이 크게 증가되고 鐵鋼工業建設로 금속제품수출(4.92%→9.79%) 역시 증가된 데 반하여 鑛山物이 중심이었던 粗原料輸出(10.52%→3.01%) 및 木製品 및 코르크製品수출(10.83%→3.22%)이 相對的으로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資本財輸出은 1964~73년의 총 753.6백만달러, 연평균 75.4백만달러에서 1974~81년간의 총 16,835.7백만달러, 연평균 2,104.5백만달러로 연평균액 기준 27.9배이상 커졌고 수출총액에 대한 그 비중도 8.67%에서 17.94%로 커졌는데 一般機械(1.56%→1.87%) 및 電氣器機(5.60%→6.62%)의 수출은 주목할만한 증가를 못한 반면, 1978년 이후의 船舶輸出增加로 輸送器機輸出은 연평균 5.4백만달러에서 787.3백만달러로 145.8배 가까이 늘었고 수출총액에서의 비중도 0.62%에서 6.71%로 커지고 있다. 1974년 이후 급속히 늘기 시작한 重化學工業製品輸出의 영향으로 非耐久消費財의 수출비중은 29.61%에서 28.36%로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섬유제품(1.51%→1.71%) 및 衣類(24.19%→19.45%)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정체상을 보이고 旅行用具(0.62%→1.70%) 및 신발類(2.95%→4.88%)의 수출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끝으로 耐久財輸出은 연평균 102.3백만달러(11.76%)에서 1,563.8백만

	철 강(%)	선 박(%)	자동차(%)	합 계(%)
1950	8.7	—	—	8.7
1955	12.9	3.9	0.3	17.1
1960	9.6	7.1	1.9	18.6
1965	15.3	8.8	2.8	26.9
1970	14.7	7.3	6.9	28.9
1975	18.3	10.8	11.1	40.2
1980	11.9	3.6	17.9	33.4

이처럼 戰後復舊가 미처 이루어지기 전부터 철강수출이 총수출의 8.7%를 점하고 1955년 이후는 철강공업의 前方聯關産業製品인 造船, 自動車 등의 수출이 커져 3개品目의 수출액이 수출총액의 40.2%에까지 이른 것은 戰後 日本이 소위 傾斜生産이란 이름으로 比較優位産業이라고 판단한 鐵鋼 및 그 前後方聯關産業을 너치의 均衡成長論이 주장하듯이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인 것이다.

〈表 10〉 輸出入商品構造(用途別 分類) (단위: 연평균 백만달러, %)

	輸 出		輸 入	
	1964~73	1974~81	1964~73	1974~81
식료·직접소비재	72.4( 8.33)	861.5( 7.35)	248.7(14.62)	1,358.4( 9.22)
공업용원료	362.0(41.63)	3,874.1(33.03)	899.2(52.87)	8,851.7(60.07)
자 본 재	75.4( 8.67)	2,104.5(17.94)	487.5(28.66)	3,980.6(27.01)
비내구소비재	257.5(29.61)	3,325.6(28.36)	10.9( 0.64)	58.7( 0.40)
내 구 소비재	102.3(11.76)	1,563.8(13.33)	54.5( 3.20)	429.8( 2.92)

資料: 貿協, 『貿易動向』

달러(13.33%)로 증가하였는데 날이 있는 製品 및 金屬製品(1.03%→0.98%)이 不振하고 TV(0.42%→1.81%), 라디오(0.82%→1.51%), 건축(0.66%→1.03%) 등이 그 간의 家電器機産業의 급성장을 반영하여 절대적, 상대적으로 수출이 크게 신장되고 玩具 및 運動具도 연평균 7.1백만달러이던 것이 216.9백만달러로 30.5배 이상 커져 그 비중도 0.81%에서 1.85%로 커지고 있다.

## 2. 輸入貿易

〈表 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료 및 직접소비재, 공업용원료 및 자본재 등 소위 投入財의 수입이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수입은 1964~81년을 통하여 3.47%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工業化의 進展이 계속된 1974~81년이 3.32%로 1964~73년의 3.84%에 비하여 더욱 낮아지고 있다. 1962~81년 간의 工業建設이 重化學工業中心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1인당 GNP가 87달러에서 1,636달러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非投入輸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간에 추진된 工業化의 성격과 意圖를 밝혀주는 것이다.

投入財 중심적인 輸入商品構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81년간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해주고 있다. 공업용원료의 비중만이 1964~73년과 1974~81년 사이에 7.20%포인트 상승하고 식료·직접소비재, 자본재, 내구 및 비내구소비재 등의 수입비중이 줄어든 가장 큰 外生的 要因은 工業化에 따른 油類消費增大 및 1974년의 第2次石油波動 때문에 1964~73년 간에 연평균 116.9백만달러로 총수입의 6.87%를 점한 데 지나지 않던 原油 및 石油製品 수입이 1974~81년에는 금액면에서도 연평균 3,109.7백만달러로 26.6배나 커지고 수입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21.10%로 높아진 데 기인한다. 그러나 식료·직접소비재 및 자본재수입이 감소한 것은 그간 진행된 工業化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입구조의 변화를 類別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64~73년간에 연평균 163.8백만달러(9.63%)였던 쌀, 밀, 밀가루 등 食糧用穀物의 수입은 1974~81년에는 546.9백만달러로 3.3

배가량 늘었지만 그 비중은 3.71%로 5.92%포인트나 줄어든 대신 보다 高所得層을 위한 食料品の 원료인 飼料輸入은 21.3백만달러(1.25%)에서 244.4백만달러(1.66%)로 커지고 그 역시 上級財用原料인 당밀, 설탕, 음료 등의 수입도 28.2백만달러(1.66%)에서 253.0백만달러(1.72%)로 증가하였다. 工業用原料의 경우 原棉 등 自然纖維用原料輸入의 비중감소(5.34%→3.79%)는 자연섬유공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나 化纖原料의 비중감소(6.52%→1.19%)는 화섬원료의 輸入代替를 반영한다. 紙類, 同製品 및 펄프(2.12%→1.68%)나 木材(6.31%→4.04%)등의 原料輸入比重的 하락 역시 重化學工業中心으로의 工業構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輕工業用原料인 粗原料의 수입은 336.1백만달러에서 2,310.1백만달러로 커졌지만 그 비중은 19.76%에서 15.68%로 4.08%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그 밖의 工業용원료인 化學品 및 金屬도 9.58% 및 8.03%이던 그 비중이 각기 8.90% 및 7.16%로 줄어들고 있다.

資本財輸入에 있어 一般機械 및 輸送器機는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246.5백만달러에서 1,868.0백만달러로 7.6배 및 115.8백만달러에서 848.2백만달러로 7.3배씩 각기 커졌지만 그 비중은 14.49%에서 12.68% 및 6.81%에서 5.76%로 약간씩 줄어들었다. 이에 반하여 電氣器機는 절대액에 있어서도 111.1백만달러에서 1,099.2백만달러로 9.9배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그 비중도 6.53%에서 7.46%로 높아지고 있다.

個別的인 品目에서 두드러진 것은 1962년에 370.8천톤이던 米輸入量이 1981년에는 1,956.6천톤으로 5.2배가 늘어 국민 1인당 밀소비량이 14.0kg에서 51.1kg으로 늘었다는 것, 22.7천톤이던 옥수수輸入量이 3,050.5천톤으로 134.4배나 늘어 수량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單一の 最大輸入穀物化했다는 것, 1964년에 5,835천bbl이던 原油輸入量이 1981년에는 182,814천bbl로 31.3배가 늘었을 뿐 아니라 輸入單價도 bbl당 2.14달러에서 35.57달러로 16.6배가 등귀하여 輸入總額이 12.5백만달러에서 6,502.5백만달러로 520.2배나 커져 單一の 最大輸入品目化한 것, 電子工業의 성장에 따라 熱이온管 및 半導體 등 中間財輸入이 1964년의 0.3백만달러에서 1981년의 611.8백만달러로 2039.3배나 커진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1981년까지 우리의 主宗輸出品으로 성장한 몇가지 品目の 輸出入比率을 보면 의약품은 35.1, 原動機는 14.4, 事務用器機는 51.2, 熱이온管은 85.8로 여전히 入超이며 鋼板은 241.5, 鋼錠은 102.6, 建設用完成部品 및 構造物(SITC 691)은 1,108.1, 鐵道車輛은 575.6, 乘用車는 584.2, 貨物自動車는 1,104.3, 船舶은 161.7로 輸出이 수입을 능가하고 있으나 輸出入比率의 有利를 그대로 比較優位の 지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乘用車의 경우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資本財產業의 경우를 보면 輸送用器機産業은 122.6으로 比較優位를



언어가는 것같지만 電氣器機産業은 65.1이며 一般機械工業은 16.3이라는 지극히 낮은 輸出入比率을 보이고 있다.

### 3. 貿易外收支

1962~81년 간에 있어 貿易外受入은 122.3백만달러에서 6,328.5백만달러로 51.7배가 커졌으며 支給은 30.0백만달러에서 7,561.6백만달러로 251.2배나 커졌다. 貿易外計定의 상대적인 비중은 商品貿易總額의 32.0%에서 28.8%로 3.2%포인트 하락하였지만 총규모가 91.2배나 커지는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1962~81년간을 통한 貿易外受入 총액은 32,229.9백만달러였었는데 대하여 貿易外支給總額은 28,280.0백만달러로서 3,949.9백만달러의 黑字를 기록했다. 그러나 1950년대 이래 黑字였던 貿易外計定은 1975년에 46.4백만달러의 赤字를 최초로 기록하였으며 1962~73년에 100.0 : 42.9이던 貿易外收支比率은 1974~81년에는 100.0 : 95.0으로 줄어 들었고 1980년부터 다시 赤字로 돌아선 貿易外計定은 앞으로는 계속 支給超過趨勢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貿易外計定 중 가장 중요한 項目인 運輸保險의 경우 受入은 1962년의 1.5백만달러에서 1981년의 1,559.1백만달러로 크게 늘어 무역외수입에서의 그 비중 역시 1962~73년의 420.1백만달러(9.4%)에서 1974~81년의 5,477.3백만달러(19.7%)로 증가하였고 支給은 610.7백만달러(31.8%)에서 7,408.1백만달러(28.1%)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약간 줄었다. 運賃·保險의 受給比率은 1962년의 100.0 : 811.7에서 1981년의 129.8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리 海上保險業務가 확대된 것 이외에도 그간 船舶輸入 및 國內造船으로 貨物船의 船腹保有量이 1962년의 161.1천G/T에서 1981년의 4,856.2천G/T로 301.6배나 증가하는 등 國際經濟活動을 위한 社會間接資本의 마련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81년 간에 運輸·保險部門은 總受入 5,897.4백만달러(18.3%)에 대하여 總支給은 8,018.8백만달러(28.4%)로 2,121.4백만달러의 赤字를 나타내어 投資收益部門과 더불어 赤字를 계속한 部門이 되고 있다.

1962년 이래 정부가 그 振興을 위해 注力하여 1975년에는 商品輸出과 마찬가지로의 特別待遇를 하기에 이른 觀光=旅行受給의 경우 1962~81년을 통하여 총 2,960.7백만달러가 受入되었고 1,707.1백만달러가 支給되어 1,253.5백만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962~73년 간에는 총 470.7백만달러, 貿易外受入에 대한 비율은 10.5%로 별다른 발전을 못 보이고 1972~81년간에는 2,490.0백만달러로 前期에 비하여 5.3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70년대도 前後期로 나누어 보면 第2次石油波動 이후에는 그 증가율과 比重이 줄어들고 있다.

근자에 이르러 受入面에서 압도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 貿易外計定部門은 雜用役으로서 1981년 현재 受入에서 2,799.1백만달러로 4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단위로 보면 1962~73년의 680.4백만달러, 15.2%에서 1974~81년의 13,204.4백만달러, 47.6%로 절대적,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는 1967~71년의 總受入이 385.0백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72~76년에는 1,402.9백만달러로 3.6배나 증가하고 1977~81년에는 12,056.3백만달러로 前期對比 다시 8.6배가량 증가한 데서 보듯이 中東地域을 비롯한 海外에서의 建設活動受入이 증가한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雜用設支給은 총 6,372.8백만달러로 受入 13,884.8백만달러와 상쇄하여 7,512.0백만달러의 赤字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7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이 政府去來部門에서의 受入이다. 즉 1962~66년에는 422.8백만달러로 전체의 62.6%, 1967~71년까지도 1,238.7백만달러로 54.5%로 무역의수입의 평균 56.3%를 점하던 政府去來收入은 越南終戰과 더불어 정부의 軍事去來收入이 격감됨에 따라 1974~81년에는 절대액에 있어서는 2,099.4백만달러로 커졌지만 무역의수입총액에 대한 비율은 7.6%로 떨어졌다. 한편 支給도 금액으로는 1962~73년의 179.9백만달러에서 1974~81년의 684.0백만달러로 커졌지만 그 비중은 9.4%에서 2.6%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하여 1962~81년간에 있어 政府去來受入은 총 4,187.8백만달러, 支給은 863.9백만달러로 3,323.9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다.

貿易外受給에서 차츰 중요성을 띠어가는 항목은 投資收益과 贈與이다. 투자수익의 경우 1962년 이후의 적극적인 外資導入政策의 당연한 결과로서 1962년에 35천달러에 불과하였던 直合作投資의 利潤送金 등이 1982년에는 3,630.9백만달러로 激增하였다. 이에 반하여 1962년에 5.2백만달러였던 投資收益受入은 1981년에는 712.8백만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投資收益項目에서의 受入은 1962~81년 중을 통하여 2,433.3백만달러였고 支給은 11,078.4백만달러로서 8,645.1백만달러의 赤字, 100.0 : 455.3이란 커다란 受給比率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비율은 1962~66년의 100.0 : 14.1에서 1967~71년의 100.0 : 212.2로 逆調를 보인 후 1977~81년에는 100.0 : 454.2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贈與計定은 1962~81년 중을 통하여 總受入 2,868.0백만달러, 總支給 238.5백만달러로 그 비율은 100.0 : 8.3이 되며 총 2,629.5백만달러의 赤字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贈與支給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하여 1962~73년을 통하여 연평균 0.7백만달러를 약간 넘었던 것이 1971년에는 3.2백만달러, 1976년에는 13.4백만달러로 커져 1974~81년간의 贈與支給은 총액 229.6백만달러 연평균 28.7백만달러로 커지고 1981년의 그것은 63.8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全期間을 통한 受給比率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 : 8.3이지만

그것은 1962년의 100.0 : 0.13에서 1981년의 100.0 : 14.0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韓國經濟가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그 國際經濟活動이 GNP증가율을 앞서는 템포를 이루어지는 한 加速化될 것이 분명하다.

#### 4. 換率, 交易條件 및 外資

##### (1) 換 率

1962년 이후의 輸出드라이브는 일부 輕工業製品 이외에는 輸出商品의 比較優位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이고 따라서 연평균 37.7%란 輸出伸張率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低農產物價格政策과 低貨金政策(=social dumping), 각종의 補助金덤핑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平價切下를 통한 換덤핑까지도 강행되었다. 그런데 換덤핑의 경우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년중 平均 1달러 대 130.0원이던 對美換率이 1981년 중 平均으로 1달러 대 700.5원으로 438.8%나 인상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國內物價가 都賣物價指數基準 1,763.5%나 상승하였다. 따라서 國內物價로 수정하였을 때의 實質換率은 1962년의 1달러 대 130.0원에서 37.6원으로 245.7%나 平價切上되었다. 바꾸어 말하여 名目換率은 1962년을 기준할 때 1981년 현재 18.6으로 平價切下되어 있지만 實質換率은 345.7로 平價切上되어 있다. 이것이 平價切下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압력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 實質換率을 그 간의 國際通貨이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排他的이 支拂手段이었고 또 1962~81년 간에 있어 우리 輸出貿易의 平均 35.6%, 輸入貿易의 30.6%를 점한 貿易相對國있던 美國의 通貨인 달러의 實質價值變動과 연결시켜 수정하면 換率이 고정되어 있던 1962~63년간, 그리고 單一變動換率制로 이행한 이후 變動幅이 작았던 1967~68년을 제외한 1962~75년간

<表 11> 換率變動推移

	名目換率(원)	實質換率(원)	實效換率(원)	實效換率指數
1961	130.0	130.0	130.0	100.0
1962	130.0	119.5	119.7	92.1
1966	270.9	127.7	134.7	103.6
1971	373.3	120.9	145.7	112.1
1976	484.0	63.9	123.6	95.1
1981	700.5	37.6	116.4	89.5
1962~66 (평균)	211.6	126.1	128.0	98.5
1966~71 (평균)	310.1	117.3	132.2	101.7
1972~76 (평균)	449.7	88.1	138.9	106.8
1977~81 (평균)	562.5	47.3	117.2	90.2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IMF, IFS

의 모든 해에 있어 實效換率은 1962년의 1달러 대 130원선을 넘었고 實效換率이 하락했던 이들 4개년을 포함한 1962~75년 간의 平均實效換率은 133.7원으로 1961년에 비하여 2.7% 平價切下되어 있었다. 다만 1976~81년간은 1974년 12월의 平價切下 이후 1980년 1월까지 1달러 대 484.0원의 명목환율을 그대로 고정시킨 채 流動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1962~81년간의 연평균 16.2%보다도 2.6%포인트나 높은 연평균 18.8%의 물가상승이 1976~81년간에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같은 기간 중 연평균 9.0%씩 진행된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은 달러의 減價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實效換率은 1976~81년 간에는 118.3원으로 1961년에 비하여 9.9%정도 平價切上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1962~75년간의 元貨의 實效的인 過低評價가 換價平效果를 통하여 輸出드라이브를 돕는 구실을 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2) 交易條件

1963~81년간을 통하여 우리의 純商品交易條件(1975=100.0)은 121.0에서 101.6으로 16.0% 악화되었다. 대체로 볼 때 교역조건은 1968년까지 급속히 개선되어 149.9의 피크를 이룬 후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지만 1973년까지도 136.6으로 1963년 수준을 웃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는 1977~79년에 다시 1963년 수준을 넘어서기는 하였지만 추세적으로 악화되어 갔다. 交易條件의 변화를 輸出單價 및 輸入單價로 나누어 고찰하면 1964~81년간을 통하여 輸出單價는 연평균 7.1%이 상승을 보인 반면 輸入單價는 8.6%씩 상승하여 交易條件을 연평균 0.6%씩 악화시켜 갔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같은 기간 중 國內都賣物價上昇率은 연평균 16.4%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상승율이 그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輸出이 採算性惡化를 무릅쓰고 강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交易條件이 1974년부터 1963년

〈表 12〉 交易條件의 變化

	交易條件指數		改善率 (%)	輸出單價 上昇率 (%)	輸入單價 上昇率 (%)	國內都賣 物價上昇率 (%)
	1975=100	1963=100				
1963~65 (평균)	122.7	101.4	+1.6	3.0	1.5	21.8
1966~73 (평균)	143.6	118.7	+1.3	5.4	4.3	8.6
1963~73 (평균)	137.9	113.9	+1.3	4.9	3.4	9.5
1974~81 (평균)	113.2	93.6	-3.0	9.8	14.8	22.7
1963	121.0	100.0				
1965	124.7	103.1				
1973	136.6	112.9				
1981	101.6	84.0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수준을 밀들게 되는 것은 그 때까지 輸出單價上昇率을 밀들던 輸入單價上昇率이 1972년부터 오히려 이를 웃돌기 시작한 때문이며 따라서 1963~68년까지의 交易條件改善, 그리고 1969~73년 간에 1963년 수준을 웃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輸出產業의 生産基盤 및 輸出振興政策이 자주적으로 조성한 조건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輸入價格의 安定이라는 1960년대의 世界經濟環境이 만들어준 他律的인 것이었다.

(3) 外資

이처럼 交易條件 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輸出產業의 探算性을 악화시켜가면서 강행된 수출 드라이브가 1962~81년 간을 통하여 累計 102,664.0백만달러의 輸出을 실현시켰지만 135,433.7백만달러에 달한 輸入需要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貿易外計定에서의 黑字累計 3,950.0백만달러를 합해도 28,829.7백만달러의 赤字를 면할 수 없었다. 물론 50년대에 도 방대한 貿易赤字는 발생하였지만 이를 無償援助를 통하여 補填할 수 있었다. 그러나 無償援助는 이미 1958년부터 격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全面的工業化를 위한 外換需要는 借款 및 外國人直接投資 등 有償援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1962~81년 간에는 <表 13>에서 보듯이 무상원조 1,289.8백만달러(5.5%), 借款 20,945.7백만달러(89.4%), 直接投資 1,206.5백만달러(5.1%), 총계 23,442.0백만달러의 外國資本이 도입되었는데 GNP에 대한 그 비율은 GNP의 보다 큰 성장에 의해 1962~73년의 8.0%에서 1974~81년의 5.4%로 遞減해가고는 있지만 1962~81년 간에 있어 평균 5.9%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表 13> 外資導入推移

(단위: 백만달러)

	원 조	차 관	직접투자	합 계	對 GNP 비율 (%)
1962~65	729.5	118.8	16.4	864.7	7.9
1966~73	554.5	3,941.7	320.8	4,817.0	8.0
1962~73	1,284.0	4,060.5	337.2	5,681.7	8.0
1974~81	5.8	16,885.2	869.3	17,760.3	5.4
1962~81	1,289.8	20,945.7	1,206.5	23,442.0	5.9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4) 國際收支

이상의 모든 결과를 우리는 <表 14>에서 볼 수 있다. 1962~81년에 있어 經常收支는 총 22,896.1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했는데 그 규모는 1962~66년 간의 연평균 63.9백만달러에서 1977~81년간의 3,004.5백만달러로 47.0배나 확대되고 있다. 貿易收支는 처음부터 赤字여서 全期間을 통하여 25,389.9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1973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黑字였던

〈表 14〉 國際收支<sup>(1)</sup>

(단위: 백만달러)

	1962~65	1966~73	1962~73	1974~81	1962~81
經常收支	-216.0	-3,434.2	-3,650.2	-19,245.9	-22,896.1
貿易收支	-1,230.2	-5,938.9	-7,169.2	-18,220.7	-25,389.9
貿易外收支	120.0	877.3	997.3	-3,920.2	-2,922.9
移轉收支	894.2	1,627.4	2,521.6	2,895.1	5,416.7
長期資本收支	144.3	3,640.6	3,784.9	14,247.5	18,032.4
基礎收支	-71.7	206.4	134.7	-3,534.0	-3,399.3
短期資本收支	-16.5	486.7	470.2	2,546.8	3,017.0
誤差 및 漏落	-11.3	56.4	45.1	1,913.2	-1,868.1
綜合收支	-99.5	749.5	650.0	-4,364.4	-3,714.4
外換保有高 <sup>(2)</sup>	146.3	1,094.4	—	6,891.0	—

註: (1) 기간중 總合計額

(2) 年末殘高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貿易外計定은 1980년 이후 赤字幅이 확대되어 1962~81년 중을 통해서는 2,922.9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여 經常計定赤字總規模는 28,312.8백만달러에 이르렀다. 이것은 移轉受入에 의하여 일부분 補填되었지만 移轉受入黑字總額은 5,416.7백만달러로 적자총액의 19.1%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1962~81년을 통하여 18,032.4백만달러, 年평균 901.6백만달러라는 長期資本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3,399.3백만달러라는 基礎收支赤字를 면할 수 없었다. 기초수지는 1次 및 3次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흑자였지만 2次 및 4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赤字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3,017.0백만달러에 달하는 短期資本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1978년 이후 深化되고 고질화되어가는 綜合收支赤字에 시달려야만 했다. 종합수지는 5개년계획기간단위로 보면 3차 5개년계획 때까지는 黑字였지만 4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4,293.6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함으로써 1962~81년간을 통털어 3,714.4백만달러의 綜合收支赤字를 남겼다. 이처럼 輸出第一主義는 급속한 輸出增大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本來的 政策使命인 全面的 工業化를 위해 필요한 外換을 마련한다는 데 실패함으로써 國際收支의 여러 局面에 構造的인 缺陷을 만들어내고 深化시켰다.

이를 1962~73년과 1974~81년의 前後期로 나누어 고찰하면 1962~73년 간은 經常收支와 그 일부인 貿易收支만 赤字이고 나머지 計定은 어떠한 수단을 援用했든 간에 모두 黑字였는데 반하여 1974~81년간에 있어서는 經常計定 중 貿易外收支, 基礎收支 및 綜合收支가 모두 방대한 赤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短期資本計定の 黑字가 年평균 39.2백만달러에서 318.4백만달러로 급격히 늘고 있음을 본다.

한편 外換保有高는 1962~66년의 年평균 165.6백만달러에서 1977~81년의 4,695.4백만달

러로 28.4배, 1962년의 168.6백만달러에서 1981년의 6,891.0백만달러로 40.9배가량 커졌지만 輸入에 대한 그 비율은 1962년의 40.0%에서 1981년의 26.4%로 줄어들고 있으며 5개년 단위로 보더라도 1962~66년의 32.3%에서 1977~81년의 30.1%로 2.2%포인트 줄어들고 있다.

#### IV. 輸出第一主義에 대한 評價

1962~81년 간의 무역정책은 國內市場을 飽和시킨 값싼 생산물을 비싸게 팔 수 있는 海外市場으로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비싸게 공급되는 재화를 外國의 값싼 供給者로부터 수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國際開放社會의 一員이 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貿易利益에의 參與를 통하여 1차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간접적으로는 그러한 過程에서 比較優位産業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적인 生産力水準도 높혀간다는 自由主義貿易原理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실천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무역정책을 그 중요한 하나로 포섭한 전체로서의 경제정책목표는 富國強兵을 위한 물질적 기초인 生産力水準의 급속한 상승,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全面的 工業化와 가능한 최대한의 自給自足에 있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정책수단의 과제는 生産力上昇의 排他的 要因으로 간주된 資本을 조달한다는 것이었고 貿易 특히 수출은 國內的으로는 資本蓄積을 돕고 對外的으로는 全面的 工業化 특히 重化學工業化를 위해 필요한 投入財를 수입할 수 있는 外換資源을 확보한다는 것을 유일한 課題로 삼고 있었다. 貿易과 特化는 해로드가 말한 바와 같은 이익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工業化를 통한 산업의 近代化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資本形成을 國內貯蓄增大 및 外資導入」의 兩面에서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貿易과 國民經濟의 관계는 1962~73년의 前期와 1974~81년의 後期에 있어 그 性格을 크게 달리하며 또 前期는 1962~65년과 1966~73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前後期를 구분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勞動力市場의 性格變化이고 前期를 나누는 특징은 生産力上昇努力에 작용한 國際收支赤字 및 인플레이션이란 制約要因이었다.

##### 1. 強制貯蓄을 통한 蓄積・成長期(1962~65)

###### (1) 成長의 基本戰略

I에서 본 바와 같이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의 내용 및 성격에 불만을 가진 軍事政權은 그 計劃內容을 수정하는 한편 해마다의 목표성장율만은 修正 引下된 修正計劃案의 목표성장율을 웃돌게 잡는 成長第一主義를 굳혀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김없는 執行을 기

한다는 구실 아래 1948~60년 간에 自由黨政權이 한국경제에 定着시키려 노력했던 市場原理에 근거한 自由企業制度를 대신하며 強權的 命令이라는 調整機構를 신속히, 전면적으로 導入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기본적인 發展戰略으로서 人間資本中心의 內包的 成長(intensive growth)이 아니라 實物資本中心의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戰略을 택하였다. 이는 당시의 낮은 생산력수준, 土地와 勞動力 심지어 資本面에서도 未利用의 資源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고도한 수준의 技術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幼稚한 發展段階에 있었던 工業構造, 市場部門에 있어 經營能力의 不足과 反社會的 企業風土라는 缺陷이 컸음에 반하여 行政部門에서는 오히려 축적된 經營能力이 있었고 정부의 經濟運營에 대한 國民의 信賴가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韓國經濟規模가 GNP 2,315백만달러, 1인당 GNP 87달러, 非農林水産部門 GNP 1,468백만달러, 수출 54.8백만달러 등으로 지극히 작은 규모이어서 行政管理(public administration)面에 才能과 經驗을 가지고 있던 자가 肆事의 企業管理(business administration)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요구한 管理技法이 소박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일단은 수긍할 수 있는 轉換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強權的 命令을 바탕으로 한 外延的 成長戰略이 經濟計劃이란 말을 전세계적으로 유포시키고 카(E. Carr)<sup>(49)</sup>로 하여금 코민테른보다도 더 큰 衝擊을 西歐에 주었다고 한 고스플랜(Gosplan)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 그리고 2次大戰中 日本, 獨逸 등 소위 輻軸國家에 의해 실시된 統制經濟의 내용 및 성격과 유사함을, 그리고 이들 後發先進國의 國家目標 역시 國民厚生이 아니라 富國強兵이었음을看過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資本, 土地, 勞動力 등 外延的 成長要因의 이용에 있어 당시의 한국경제사정은 資本不足이 가장 큰 隘路이고 土地와 勞動力은 遊休狀態에 있는 것이 많았으므로 生産力上昇의 기초로서 土地와 勞動力을 결합시켜 이를 極大活用한다는 것이 理論의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利用度가 낮은 土地와 勞動力을 결합시킬 수 있는 생산활동은 農業振興 뿐이었으니 그 이유는 첫째 페티의 法則에 따른 건전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 중 하나였던 失業의 해소(革命公約에서 말한 民生苦解決)의 첩경이 되며, 세계 1962~65년 중 총수입의 16.3%를 점했던 食料品輸入을 대체함으로써 당시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고질이었던 外換不足을 완화시키고 革命公約에서 말한 自立經濟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重農主義와 食糧自給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결코 이를 성의있게 실천하지는 않았으니 그 근본원인은 그들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重商主義的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49) E.H. Carr.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Europe*, 1946.



軍事政權의 政治的 目標은 70년대에 들어온 후에 더욱 분명히 천명됐듯이 富國強兵에 있었고 그 수단을 우선 鐵鋼 및 石油關聯産業을 중심으로 한 重化學工業化에서 구하였다.<sup>(50)</sup> 그런데 土地와 勞動力은 重化學工業化를 통한 富國強兵에는 직접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오랜 시간을 요한다. 농업생산력이 상승하여 剩餘生産物과 더불어 剩餘勞動力을 他産業에 배출하려면 一世代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勞動力 역시 교육과 기술훈련을 통하여 生産力上昇에 기여하게 하는 데는 一世代가 걸린다. 軍特有的 近視眼的 思考, 短期戰略이 軍事政權으로 하여금 이러한 長期的 處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土地와 勞動力에 대한 정책은 經濟原理가 요구하는 것과는 正反對方向의 것이었다. 즉 外穀導入의 증대에 의하여 國內農産物價格을 낮게 유지하고 그 결과 생긴 農村經濟崩壞가 工業化를 위한 勞動力供給增加와 實質賃金上昇抑制의 二重作用을 하게 만든 한편 勞動力에 대해서도 1953~61년에도 4.28%였고 1962~65년에도 4.53%이었던 GNP 중 教育서비스 支出의 크기를 1962~81년 평균 3.65%로, 1974~81년에는 2.91%로 떨어뜨려 技術蓄積, 勞動力의 質的 向上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政策意圖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역력히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우리 經濟의 궁극적인 進路는 公業화를 통한 産業의 近代化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資本形成이기 때문에 國內貯蓄의 증대와 外資導入에 1차적으로 힘을 기울이기」<sup>(51)</sup>로 했던 것이다.

## (2) 輸出드라이브와 外資導入

그런데 第1次 生産財産業이 없는 한국에서는 工業化의 내용과 속도는 生産財輸入에 一義的으로 좌우되므로 가장 力點이 두어졌던 것이 對外支拂手段의 확보와 그 增大였다. 그러나 1954~61년기간 중 輸入의 75.8%(총수입 2,754.6백만달러에 대하여 무상원조는 2,088.3백만달러)를 支辨해왔던 연평균 261.0백만달러의 원조는 1962~65년에는 그 66.9%水準인 182.4백만달러로 감소되어가고 있었으며 輸出은 50년대의 停滯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1962~65년간을 통하여 그 규모는 연평균 109.0백만달러로 重化學工業化를 위한 방대한 外換需要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 결과 정책당국은 한편으로는 輸出第一主義를 내걸어 수출드라이브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 권력장악과 거의 동시에 有償의 外資導入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즉 1961년 8월 29일에는 韓日經濟協力の 길을 트기 위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을 일본에 파견하고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西獨과의 經協을 위한 民間使節團을 파견

(50) 정부는 1962년 1월 30일 不正蓄財者 8명에게 肥料工場 및 綜合製鐵工場建設을 위한 投資共同體를 결성할 것을 명령하고 1963년 3월 12일에는 政府保有非 16백만달러, 內資 3.5억원으로 日産 35천bbl의 精油工場을 건설하였다.

(51) 大統領秘書室,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 1975(傍點 筆者).

한 후 11월 13일에는 商工長官을 西獨에 과견하고 12월 30일에는 60명의 在日僑胞에게 産業을 視察하게 한 후 그 財産搬入=對韓投資를 요청하였다.

### (3) 內資動員

綜合製鐵工場建設意欲은 第2次 5個年計劃期間에 가서도 時期尙早이며 채산성이 없다는 IBRD診斷에 따라 綜合製鐵借款國이 차관공여를 거부함으로써 계속 좌절되지만, 精油, 시멘트, 肥料, 化纖 등에 대한 방대한 投資需要는 줄어들지 않아 內資動員에 대한 壓力을 가증시켰고 급격한 投資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즉 外資導入이 여의치 않게 되자 政策당국은 內資動員極大化에 政策力點을 돌리고 다음과 같은 非正常的인 수단에 의해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 ① 不正蓄財還收

정부는 不正蓄財者로부터 不正蓄財分을 환수함으로써 이를 정부가 직접 重化學工業化를 위한 投資資金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의 심한 反撥로 1961년 6월 2일 13,823.5백만원으로 中間發表되었던 不正蓄財額은 8월 2일의 1次通告時는 8,312백만원, 8월 13일의 2차통고시는 4,695백만원, 12월 3일의 최종통고에서는 4,228백만원으로 中間發表規模의 30.6%로 줄었고 現金完納이 거부됨으로써 工場建設後의 株式代納으로 후퇴하고 또 1,614백만원의 未納缺損이 생겨 겨우 中間 발표액의 18.9%에 불과한 2,614백만원이 환수되었다.<sup>(52)</sup>

#### ② 通貨改革

內資動員의 瞬時的 極大化와 그 政府支配라는 생각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 1962년 6월 10일의 通貨改革이었다. 그러나 還收된 1,873억원의 통화 중 6월 23일 현재 동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전체의 5.2%인 98억원 뿐이었다. 이는 通貨改革立案者의 推論과는 달리 100만원 이상의 申告額이 전체의 14.8%인 277억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며 그나마 未久에 해제되었다.

#### ③ 貯蓄채널多岐化 및 誘因增大

이같은 非正常的인 수단에 의한 內資動員努力이 모두 水泡化하자 경제정책당국은 1961년 7월 이후 추진해왔던 정상적인 內資動員極大化努力에 힘쓰게 되었다. 즉 1961년 7월 6일의 金利引上 이후 1962년 2월 1일의 積金金利引上에 이어 1965년 9월 30일에는 受信利率 年 30.0%, 與信利率 年 24.0%란 逆마진제까지 실시했다. 한편 1961년 7월 25일의 中小企銀設立, 1962년 12월 29일의 國民銀行設立 등 金融機關을 증설하고 그 店鋪網을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全金融機關의 民間預金은 1961년말의 22,251백만원에서 1965년 9월말의

(52) 金成斗, 『財閥과 貧困』, 1965.

〈表 15〉 1962~65년의 貯蓄·貿易指標

	국내저축 (억원)	해외저축 (억원)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무역적자 (백만달러)	외자도입총액 (백만달러)
총액	1,773.4	1,909.7	4,358	1,849.9	1,414.1	864.8
정부	98.0	—	—	—	—	—
민간	1,675.4	—	—	—	—	—
연평균액	443.4	477.4	109.0	462.5	353.5	216.2
% (GNP대비)	7.03	8.60	6.9	15.5	8.6	8.1
件 (%)	88.5	21.7	44.2	13.2	5.9	-0.8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57,792백만원으로 159.7% 증가하는 데 그쳤다.<sup>(53)</sup>

이러한 貯蓄不振은 1966년 이후 金融에 대한 정부의 直接的인 支配, 命令이라는 歪曲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지만 金融에 대한 便法的 利用은 1962년에 소위 證券波動을 낳았다. 資本主義社會에서 가장 正統的인 資本動員手段인 資本市場은 1968년 11월의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로 미약하나마 그 기능을 하게 되었지만 그에 앞서 便法的, 強力的 利用이 낳은 證券波動이 證市機能의 長期痲痺를 가져왔던 것이다.

#### ④ 貯蓄의 強制

이처럼 強力的 및 正常的인 모든 수단에 의한 내자동원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정부는 강제적 저축(compulsory saving) 및 인플레이션을 통한 強制貯蓄(forced saving)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給與의 通帳支給制, 國民貯蓄에의 強制加入 등 強制的 貯蓄도 內資動員에 기여하였지만 1962~65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輸出 및 外資導入의 不振으로 國際收支라는 障壁이 급속한 工業化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자 인플레이션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그 장벽을 迂廻하고자 한 데 있다. 즉 1953~56년의 연평균 41.5%에서 1957~61년의 7.2%로 안정 되어갔고 1962년에는 8.8% 상승에 그쳤던 도매물가는 1963년에 20.5%, 1964년에 35.1%나 폭등하여 1965년에는 방대한 外資導入에 의해 9.9%로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2~65년 간을 통하여 연평균 18.6%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다. 국민저축율이 1961년의 2.9%, 83.6억원에서 1962~65년의 연평균 7.0%, 1965년의 593.9억원으로 610.4%나 증가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強制貯蓄의 결과였다. 정부는 1962~65년 증을 통하여 연평균 27.6%씩 증가시킨 國內與信膨脹이 당연히 결과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1961년 11월 9일 物價調節에 관한 臨時措置法을 제정하는 등 對策을 강구했지만 1962~65년 중 연평균 6.7%로 提高된 성장율을 위하여 연평균 18.6%란 投資인

(53) 같은 기간 중 經常市場價格으로의 GNP는 2,933.5억원에서 7,686.4억원으로 162.0% 증가하였다.

플레이션을 誘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 (4) 農業과 勞動

資本形成과 外換獲得을 위한 補足的 手段으로 희생된 것이 農業과 勞動이었다. 農業의 경우 그 생산물은 原料用이든 最終消費用이든 輸出 및 工業化를 위한 코스트 다운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억제되었다. 물론 農業發展을 위한 경제정책수단의 강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耕地面積擴大, 農藥 및 肥料의 遞增的 投入을 통한 생산의 量的 擴大中心이었지 技術向上을 통한 投入節減, 價格 및 所得支持를 통한 農家厚生의 증대 및 農工間交易條件의 개선은 시도되지 않았다.<sup>(54)</sup> 뿐만 아니라 竊베르主義下的 프랑스 農業經濟보다도 더 有害한 要因이 작용하였으니 그것은 1962~65년 간에 총 3,401.8천톤이나 導入된 外穀의 덤핑作用이었다. 이것은 1961년의 人口 1인당 23.4kg이던 外穀輸入에 비하여 31.6%가 많은 30.8kg이 된다.

한편 1961년 9월 1일 「政府管理企業體職員報酬統制에 관한 臨時措置法」을 공포하여 「낮은 實質賃金은 國家利益에 기여한다.」<sup>(55)</sup>(竊베르)는 重商主義勞動學說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경제정책당국은 이 기간 중 鑛工業名目賃金은 81.3% 인상시켰으나 소비자물가를 80.4%나 등귀시켜 1965년의 實質賃金은 18,087원(1975년기준)으로 1961년의 17,993원에 대비하여 0.5%, 94원이 증가했을 뿐이었다. 이에 반하여 勞動生産性은 1961년의 23.2에서 1965년의 32.0으로 37.9%나 올라 鑛工業勤勞者의 生産性賃金은 1961년을 100.0으로 할 때 1965년에는 72.9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低農家所得 및 低賃金은 輸出增大를 위하여 二重的인 기여를 하였다. 첫째 그것은 輸出商品의 原價를 절감함으로써 덤핑輸出의 길을 열었다.<sup>(56)</sup> 둘째 그 뿐 아니라 도시 근로자의 實質賃金=購買力이 1961년 수준의 97.0%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農家の 패리티所得이 88.7%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생산물에 대한 內需壓力을 그만큼 줄이고 輸出을 위한 剩餘를 強力的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960년만 해도 工產品輸出은 면직물(2,443천달러), 베니어합板(21천달러), 銑鐵(468천달러) 등 단지 3個品目에 집중되고 이

(54) 1961년을 기준할 때 耕地面積은 11.0%, 비료사용량은 55.4%, 농약사용량은 129.1% 증가하였다. 한편 農業生産指數는 1961년의 100.0에서 1965년의 118.8로 커졌지만 交易條件은 1962~65년 간의 평균 88.65로 11.35% 악화되었다.

(55) E. Heckscher, *op. cit.*

(56) 이 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分析이 1960년대의 값싸고 풍부한 質 좋은 勞動이 勞動集約産業에 比較優位를 주어 그 輸出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1962~65년 간의 生産性賃金이 정책적 의도적으로 1961년 수준의 83.6%선, 1962년의 97.4%에서 1965년의 72.9%로 遞減的으로 引下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農業交易條件도 1961년의 88.7% 수준으로 개악되었다는 사실을 옮겨

밖에는 기계류(SITC 7類 전체)가 88천달러, 잡제품(SITC 8類 전체)이 93천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며 SITC 5~8類合計한 것의 수출규모도 수출총액의 13.8%인 4.5백만달러에 불과하였다. 이같은 한국의 工產品輸出이 1962년에 총수출의 27.0%인 14.8백만달러로, 다시 1963년에는 51.7%인 44.9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工産額이 1960~63년 간에 불과 41.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비시켜 생각할 때 企業人의 外向的 態度變化와 輸出意欲의 증대, 정부의 올바른 經濟活動方向提示, 60년대의 유리한 國際經濟環境變化 등 國內外의 어떠한 與件變化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62~65년간의 급격한 수출증가는 政策的, 意圖的으로 근로자 및 농민을 희생시켜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근로자 및 농민의 절대적 상대적 地位變化를 일으키지 않은 正常的 基盤 위에서, 實質賃金의 급격한 하락없는 正常狀態에서의 값싼 勞動力이 바탕이 된 比較優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重商主義的 搾取 위에서 강행된 出血·飢餓輸出이었던 것이다.

低賃金 및 低農產物價格은 이처럼 輸出增大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資本形成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되었다. 즉 자본형성이 工業化를 통한 산업의 近代化, 실제에 있어서는 富國強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逆進的 再分配政策을 써서 限界所得의 보다 큰 부분이 限界貯蓄性向이 큰 高所得層으로 갈 수 있게끔 하였다. 1963~65년 간을 통하여 從事者地位別로 본 被傭者의 비율은 평균 31.4%인데 分配國民所得 중 被傭者報酬의 크기는 30.2%이어서 被傭者의 相對的 地位는 96.1로 全國民平均보다 3.9%포인트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 2. 外債累積的 蓄積·成長期(1966~73)

### (1) 成長의 基本戰略

근로자 및 농민 등 노동하는 低所得層의 희생 위에서 이룩된 1962~65년 간의 外樣的 成就是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좀 더 용이한 對外的 條件을 마련하였고 또 對內的으로도 朴正熙政府는 1965년까지는 거의 모든 政治的 障壁을 극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62~65년이라는 市場經濟로부터 命令經濟로의 過渡期의 前段階에 있었던 마찰과 對立에서도 승리하여 民間經濟活動 전반에 대한 보다 완벽한 命令體制를 확립할 수 있었고 동시에 金融에 대해서도 排他的인 支配權을 장악하였으며 月間經濟動向報告, 輸出振興擴大會議 등 거의 日常化된 經濟活動業務에 대해서까지도 政治的 最高權力者가 직접 命令할 수 있는 機構를 완비시켜 갔다. 이같이 크게 好轉된 조건 하에서 朴正熙政府는 그때까지 보였던 妥協的 態度를 民族的 民主主義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내버리고 「先建設·後分配」라는 開發哲學에 근거한 富國強兵政策을 「祖國近代化」란 國民國家建設口號下에 보

다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초에 있었던 技能工스카우트騷動이 보이듯이, 그리고 農耕地도 1968년의 2,319천 ha를 피크로 1961년 이후 연평균 1.9%씩 증대해 오던 것이 1969년 이후 反轉되어 감소되기 시작한 것에서도 보듯이 外延的 成長要因은 土地 및 勞動力의 두 측면에서 한계성을 나타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生産要素의 量的 側面을 중시하는 外延的 成長戰略은 여전히 持續되었다. 그러나 1962~65년 간에 있어 資本形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인플레이션을 통한 強制貯蓄은 연평균 18.6%란 빠른 속도로 진행된 物價上昇에 대한 국민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저축동원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정책당국은 國內的으로는 高金利를 통한 自發的 貯蓄을 유인하고 國外的으로는 1962~65년의 성취를 담보로 적극적인 外資誘致政策을 쓰는 戰術轉換을 단행했다. 1965년 9월 30일 金利現實化란 이름으로 受信金利를 종래의 9%(3個月 定期預金)내지 15%(1년 이상 定期預金)에서 18%내지 30%로 2배나 인상하고 與信金利는 종래 14.0%이던 商業어음割引利率을 24.0%로 하는 소위 逆다진制를 실시한 것이 政策轉換의 對內的인 信號이었고 같은 해 6월 22일 全國民的 反對를 무시하고 韓·日間 基本條約 등 25개 協定文에 正式調印하여 請求權資金 3억달러, 財政借款 2억달러, 民間商業借款 3억달러라는 크기로 3억달러 플러스 알파라는 金·大平메모를 구체화시켜 日本資本導入의 길을 연 것이 그 對外的인 表示였다.

## (2) 資本形成

1973년의 GNP는 13,152백만달러로서 1965년의 3,006백만달러에 비하여 4.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1975년 不變市場價格으로도 38,849.9억원에서 84,634.5억원으로 2.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 같은 급속한 GNP증가로 1인당 GNP도 經常달러 기준 386달러에 달하였으며 不變價格으로도 1965년의 135,342원에서 284,173원으로 83.4%가량 증가하였다. 이 같은 1인당 實質所得의 증대, 8.6% 수준으로의 物價上昇率抑制, 1년이상 定期預金實行利率 기준 1965년 9월 30일의 26.4%에서 계속 인하되어 가기는 했지만 1973년말 현재 12.0%로 물가상승율보다 높았던 受信利率, 1965년 현재 41.8%였던 上位 20%家口의 所得占有率이 1975년에는 45.3%로 커지고 下位 40%家口의 그것은 19.3%에서 16.8%로 하락한 데서도 나타나는 逆進的 再分配 등은 1966~73년에 강력한 資本形成要因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1962~65년 간에는 연평균 100.4억원에 불과했던 家計貯蓄은 1966~73년에는 1,431.2억원으로 14.3배나 늘었고 정부, 公法人 및 民間法人貯蓄도 420.6억원에서 2,046.4억원으로 4.9배 늘었고 固定資本消耗充當金도 역시 319.0억원에서 1,863.5억원으로 5.8배나 늘었다. 그리하여 이 기간 중의 總資本形成은 53,188.9백억원, 연평균 6,648.6백억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1962~65년 평균

에 비하여 7.4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다. 이 같은 資本形成을 内外資別로 보면 國民貯蓄이 총 37,618.1억원, 연평균 4,702.3억원으로 전체의 69.8%이며 海外貯蓄이 16,269.8억원, 연평균 30.2%인데 海外貯蓄의 비율은 1962~65년의 51.9%에 비하여 21.7%포인트나 낮아졌다. 한편 民間貯蓄은 27,365.6억원, 연평균 3,420.7억원으로 국민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7%에 달했는데 이는 1962~65년의 그 비중 94.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21.8%포인트나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증가된 국민저축을 바탕으로 한국경제는 1962~65년의 연평균 15.0%에서 1966~73년의 24.7%로 9.7%포인트나 投資率을 높일 수 있었다. 總投資 중 93.1%를 점한 國內總固定資本形成의 産業別配分은 1차산업이 8.7%, 鑛工業이 24.3%, 社會間接資本 및 建設業이 36.8%, 기타 서비스業이 30.2%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이 기간 중 製鋼能力 1,032천톤의 浦項綜合製鐵, 연산 17천톤 규모의 大韓알루미늄工場, 21천톤 규모의 石浦亞鉛製鍊所 등이 건설되었고 不變市場價格으로의 生産額 기준 重化學工業의 비율은 1965년의 34.8%에서 1973년의 46.6%로 커지고 호프만비율도 2.80에서 2.34로 바뀌었다. 그러나 輸出商品構造를 보면 輕工業製品은 1965년의 51.7%에서 73년의 63.4%로 11.7%포인트 커진 데 비해 重化學工業製品은 13.7%에서 23.8%로 10.1%포인트 커졌을 뿐이다.

### (3) 輸入增大와 物價安定

韓日國交正常化와 對韓借款供與決定은 기타 資本輸出國에 대하여서도 유리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하여 1965년에 49.8백만달러였던 外資導入總額은 1966년에는 177.3백만달러로 3.6배 가까이 늘어났고 1962~65년 중을 통하여 총 135.2백만달러, 연평균 33.8백만달러에 지나지 않던 外資導入規模는 1966~73년 간에는 총 4,262.4백만달러, 연평균 532.8백만달러로 1962~65년 평균에 비하여 3.9배 이상 커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借款에 의한 物資輸入을 반영하여 1962~65년에는 총 1,849.8백만달러, 연평균 462.5백만달러에 불과했던 輸入規模는 1966~73년에는 총규모 16,139.7백만달러, 연평균 2,017.5백만달러로 1962~65년에 비하여 4.4배가량 커질 수 있었고 輸入依存度는 15.5% 수준에서 26.2%로 10.7%포인트가 높아졌다. 1962~65년에 비하여 借款輸入을 바탕으로 단번에 4.4배나 커진 輸入은 1966~73년간의 물가상승율을 연평균 8.6% 수준으로 밑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기간 중에 輸出은 1972~73년의 國際商品價格暴騰 등을 반영하여 비록 物量基準으로는 1962~65년의 연평균 41.0%보다 낮은 37.6%의 伸張率을 보였으나 價格기준으로는 연평균 45.3%로 그 이전의 44.2%보다도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1966~73년 간의 수출 총액은 8,400.3백만달러, 연평균 1,050.0백만달러로 1962~65년의 연평균 수출액 108.9백만

달러보다 9.6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伸張率에도 불구하고 절대액에 있어서는 輸入額의 증가를 따를 수 없어 1962~65년에 총 1,414.1백만달러, 연평균 353.5백만달러이던 무역적자는 1966~73년에는 총 7,739.4백만달러, 연평균 967.4백만달러로 2.7배 이상 커졌지만 그간의 GNP성장으로 GNP에 대한 무역적자의 비율은 평균 13.0%에서 12.9%로 0.1%포인트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런데 輸出은 國際分業을 통한 貿易利益의 享受手段으로서보다는 借款에 대한 償還能力 따라서 앞으로의 借款獲得을 위한 擔保로서 오히려 더 높은 意義를 경제정책당국은 부여하였고 이것이 外資稼得率 또는 輸出産業의 附加價值生産性이나 個別輸出企業의 採算性에 관계없이, 그리고 交易條件의 惡化要因이 됨에도 불구하고, 輸出의 量的 增大에 政策力點이 가해진 主要原因이었다. 즉 外資稼得率은 1962~65년 간의 평균 73.7%에서 1966~73년의 56.8%로 16.9%포인트 하락하고 1964~68년 간에 연평균 4.4%씩 개선되어왔던 交易條件은 1969~73년에는 오히려 1.8%씩 악화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量的 增大를 위한 드라이브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우리의 國際貿易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交易對象國이었던 美國과 日本이 韓國貿易을 위하여 행하여 왔던 구실이 달라진 것도 이 기간의 일이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은 1957년 이래 계속 日本이었고 수입대상국은 1955년 이래 미국이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1962~65년 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었다. 그런데 對美輸出은 1966~73년 중 총 3,436.4백만달러, 연평균 429.6백만달러로 1962~65년간의 對美 연평균수출액 33.4백만달러에 비하여 12.9배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하여 對日輸出은 총 1,437.8백만달러, 연평균 179.7백만달러로 對美輸出의 41.8% 수준에 불과하며 1962~65년간 연평균수출액 32.8백만달러에 비하여 5.5배 가량 늘어났을 뿐이었다. 이에 반하여 對日輸入은 같은 기간중 6,634.7백만달러, 연평균 829.3백만달러로 1962~65년 평균액 138.4백만달러에 비하여 6.0배 가량 늘어나 같은 기간 중 총액 4,631.9백만달러, 연평균 579.0백만달러로 1962~65년의 222.2백만달러에 비하여 2.6배 밖에 늘어나지 못한 對美輸入에 비하여 1.4배 이상 웃돌고 있다. 그 결과 對日赤字는 1962~65년 평균 105.6백만달러에서 1966~73년의 649.6백만달러로 6.2배 정도 커지고 총 5,196.9백만달러로 이 기간 중의 무역적자총액 7,739.4백만달러의 무려 67.1%를 점한 데 반하여 對美赤字는 188.8백만달러에서 149.4백만달러로 오히려 20.9%가 줄었고 赤字總額도 1,195.8백만달러로 무역적자총액의 15.4%에 불과하게 되었다. 美國은 輸出第一主義政策에 대하여 輸入市場開放을 통해 협력하였고 日本은 富國強兵을 위한 全面的 工業化에 資本財 및 原資財를 판매함으로써 협력하였던 것이다.



수입의 급격한 증대에 의하여 8.6%로 안정될 수 있었던 이 기간 중의 物價는 食料品을 중심한 貨金財價格의 급격한 상승으로 1974~81년 간의 한국경제를 위협한 결정적인 不安要因인 貨金上昇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즉 이 기간 중을 통하여 農家の 페리티率は 평균 87.2로 1962~65년의 88.7에 비해서도 1.5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가격상승율은 연평균 11.5%로서 식료품 이외의 물가상승율 7.4%를 4.1%포인트나 앞질렀다. 특히 農水産食品價上昇率은 연평균 14.0%로 다른 어떠한 部類의 물가보다도 빨리 등귀하였으며 高所得층을 위한 보다 上級財라고 할 수 있는 加工食品의 가격상승율 7.6%보다도 3.9%포인트나 컸었다. 이 같은 貨金財價格의 상승이 근로자의 生計費를 壓迫함으로써 21.4%란 名目貨金上昇의 중요한 一因으로 적용하였으나 이 같은 名目貨金上昇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實質貨金上昇率을 연평균 9.2%로 억제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3~61년 간의 연평균 4.28%(對GNP비율), 1962~65년 간의 연평균 4.53%란 비교적 높았던 教育投資支出에 뒷받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평균 9.2%란 實質貨金上昇에 자극되어 이 기간 중의 勞動生産性上昇率은 연평균 12.61%로 1962~65년의 8.45%에 비하여 4.16%포인트, 49.2%나 상승함으로써 生産性貨金を 全期間 평균 3.0%포인트 引下시켰고 이것이 比較優位基盤 없이 강행되는 輸出을 지탱하는 유력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生産性上昇率을 밀도는 낮은 實質貨金에 의하여 이 기간 중을 통하여 8.6%란 낮은 物價上昇率과 10.26%란 높은 經濟成長率 그리고 45.3%(實質項으로는 37.6%)란 빠른 輸出增加率을 기록할 수 있었다.

### 3. 成長效率純化期(1974~81)

이 기간의 특징은 巨視的으로는 첫째 연평균경제성장율이 현저히 줄어든 대신, 둘째로 물가상승율은 다시 빠른 템포를 되찾고, 세계 무역적자는 1966~73기간보다도 더 커졌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微視的으로는 첫째 所得隔差가 더욱 확대되고, 둘째 農村解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세계 모든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輸出産業의 採算性이 악화되는 등 韓國經濟의 成長潛在力이 현저히 고갈되어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表 16>에서 보듯 1974~81년간의 물가상승율은 1962~73년 간의 연평균 11.93%보다 10.78%포인트 높은 22.71%로 커졌고 무역적자는 연평균 2,952.0백만달러로 前期平均 762.8백만달러에 비하여 3.9배가량 커졌으며 外債規模는 1962~73년의 366.5백만달러(원조제외)에서 2,219.3백만달러로 6.1배 정도나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율은 9.07%보다 1.64%포인트가 낮은 연평균 7.43%로 하락하였다. 한편 1970년에 41.6%이던 上位 20% 家口層의 所得占有率은 1978년에는 46.7%로 커진 반면 下位 40% 家口의 그것은 19.6%에서 15.4%로 하락하였고 1973년에

〈表 16〉 主要經濟指標(1962~81)

	1962~65	1966~73	1962~73	1974~81	1962~81
경제성장률 (%)	6.68	10.26	9.07	7.43	8.42
물가상승률 (%)	18.58	8.60	11.93	22.71	16.24
수출증가율 (%)	40.98	37.61	38.73	16.56	29.87
수입증가율 (%)	14.58	28.23	23.68	12.08	19.04
수출의존도 (%)	6.90	17.73	14.12	35.33	22.60
수입의존도 (%)	15.45	26.23	22.63	42.23	30.47
무역적자 (백만달러)	353.5	967.4	762.8	2,952.0	1,638.5
외환조 ( " )	216.2	602.1	473.5	2,220.0	1,172.1
차관 ( " )	182.4	69.3	107.0	0.7	64.5
직접투자 ( " )	29.7	492.7	338.4	2,110.7	1,047.3
직접투자 ( " )	4.1	40.1	28.1	108.6	60.3
실질임금상승률 (%)	0.35	9.20	6.25	8.19	7.03
노동생산성상승률 (%)	8.45	12.61	11.23	11.35	11.28
교육서비스支出/GNP (%)	4.53	3.94	4.13	2.91	3.65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및 『韓國의 國民所得』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50.0%이던 農業從事者의 비율은 1981년에는 34.2%로 줄어들고 農業 GNP의 비율은 22.4%에서 14.6%로 하락하였다. 끝으로 1972년에 4.55%이던 輸出産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 4.64%이던 賣出額經常利益率은 1981년에는 각기 1.30% 및 1.09%로 크게 줄어들었다.

比較優位가 없던 基盤 위에서 1962~73년 간에 38.7%란 높은 輸出伸張率을 실현시켜 왔던 한국경제는 以下에서 설명할 國內外與件의 악화에 따라 1974~81년에는 그 수출신장율을 연평균 16.6%로 크게 하락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경제가 成長의 彈力性을 잃어감에 따라 輸出彈性值도 1962~73년의 4.1에서 1974~80년에는 3.3으로 크게 떨어졌다. 成長의 코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엄청나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成長努力의 成果는 크게 줄어든 것이 이 時期의 특징이다.

(1) 國內經濟與件의 變化

1962년부터 진행되고 1973~4년을 고비로 그 逆機能을 강화하기 시작한 여러가지 條件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外延的 成長要因의 고갈

外延的 成長要因 중 하나인 土地 그 중에서도 農耕地는 1968년의 2,319천ha를 피크로 절대적으로도 줄어들기 시작하여 1973년에는 2,241천ha가 되었는데 1981년에는 다시 2.4%가 줄어든 2,188천ha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土地/人口比率도 1962년의 1인당 37.1a에서 1973년의 29.0a를 거쳐 1981년에는 25.6a로 62년對比 31%나 줄어들었다.

한편 經濟活動人口는 1963년의 8,343천명에서 1973년의 11,600천명을 거쳐 1981년에는 14,710천명으로 63년對比 76.3%나 증가하였지만 그 年平均增加率은 1965~73년 간의 3.4%에서 1974~81년 간에는 3.0%로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資本의 경우 國民投資率은 1965~73년의 16.1%에서 1974~81년의 22.5%로, 總投資率은 24.7%에서 29.8%로 각기 현저히 상승하여 經常달러의 1인당 投資額은 1962년의 11.1달러에서 1973년의 98.8달러를 거쳐 1981년에는 446.6달러로 62년對比 40.2배 이상 커졌지만 勞動力 및 土地供給率遞減下에서의 資本供給遞增은 기술진보를 수반하지 못한 1974~81년의 한국경제에서는 生產要素最適結合比率로부터의 乖離를 통하여 급격한 限界生産力遞減을 초래할 수 있을 뿐이었다.

### ② 調整機構의 非效率化

市場 및 命令이란 調整機構의 效率이 技術水準 및 市場規模라는 두가지 요인에 의하여 一義的으로 결정됨은 經濟史 및 比較經濟體制理論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다. 1974~81년 간의 한국경제에 있어 技術水準의 變化란 質的 要因은 產業構造 및 工業構造의 變化, 中·高校 및 大學校의 在學生 및 卒業生의 全人口 및 各級學校就學年齡層人口에 대한 비율 등 간접적인 증기에 의하여 설명될 수 밖에 없는데 1974년에 工業構造가 26.1%, 호프탄比率이 2.15, 高校在學生이 981.2천명으로 1962년對比 3.0배 증가, 大學以上 在學生은 266.1천명으로 2.2배 증가 등의 사실에 비추어 1977~81년의 科學技術者不足率이 27.8%, 技術工不足率이 45.7%라고 하더라도<sup>(57)</sup> 1974~81년의 한국경제가 1962~73년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복잡하여졌음은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經濟規模는 1981년 현재 經常달러價格 기준으로는 1973년對比 4.8배, 不變價格으로는 1.8배 확대되었으며 특히 非農林水產業 GNP규모는 1973년의 9,864백만달러에서 1981년에는 51,941백만달러로 5.3배나 커졌다. 部門別로 보더라도 무역규모는 1973년의 7,465.3백만달러에서 1981년의 47,385.2백만달러로 6.3배 이상 커졌고 國內與信規模도 19,486억원에서 224,593억원으로 11.5배가 커졌다. 이 같은 규모의 확대는 命令이라는 機構에 의한 經濟活動의 調整을 어렵게 하고 드디어는 順機能을 증가하는 逆機能을 낳게 되었다.

### ③ 技術進步의 遲滯

外延의 成長要因의 소멸과 그 要因 간의 均衡破壞는 주로 技術進步에 의해 해소되어야 하며 組織改善에 의해 補足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人間資本, 그것도 量이 아닌 質의 면에서만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는 한국경제에서 研究開發投資는 비록 1970~73년의 평

(57)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展望 1977~91年』, 1977.

균 0.40%보다는 커졌다고 하지만 1974~80년 간에 0.64%로서 日本의 1.72%(1974~76)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62~73년을 통하여 4.13%이던 GNP 중 教育서비스支出의 크기는 1974~81년에는 2.91%로 크게 줄어들었다. 組織=體制와 技術은 7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遲滯를 거듭했다.

④ 牽制·均衡의 破壞

決定權은 그것이 政治的인 것이든 經濟的인 것이든 集權化되고 過剩肥大되어 牽制와 均衡의 작용에서 벗어나면 그 適法性과 더불어 效率性까지도 상실한다. 「絕對權力은 絕對腐敗한다.」는 액톤(Acton)卿의 名言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1974~81년의 한국경제에서는 1962~73년과의 轉換期인 1972~74년 간 經濟政策의 총책임자로 있던 太完善經濟企劃院長官이 이를 官給性經濟라고 할 만큼 정부에 모든 決定權과 資源支配權이 집중되어 있었다. 1962년의 33.7%에서 1973년의 21.9%로 떨어졌던 정부의 GNP收用率은 1981년에는 다시 33.7%로 커졌고 擔稅率은 19.1%로 커졌으며 金融을 지배하고 借款을 管掌함으로써 財政, 金融, 外換 등 모든 면에서의 資本을 직접 지배하거나 간접적으로 좌우하였으므로 가능한 최후의 牽制的 社會勢力일 수 있었던 勞動組合마저도 1972년 긴급조치를 통하여 團體行動權을 박탈함으로써 정부의 經濟權力은 絕對化되었다.

⑤ 實質賃金코스트의 上昇

1973년까지 연평균 9.07%란 경제활동규모의 급속한 확대는 勞動力需給事情에 구조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하여 1974년에는 종래의 勞動力需給關係가 역전되고 勞動市場은 販賣者市場化하기 시작했고 이는 1974~75년의 第1次石油波動 후의 好況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속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3년까지 꾸준히 계속된 賃金財價格上昇을 主軸으로 한 인플레이션은 賃金引上에 대한 근로자의 壓力을 강화시켜 이것이 勞動市場의 性格變化와의 相乘作用下에 1974~81년 간의 賃金を 名目額 기준 29.30%, 實質額 기준 8.19%나 인상시켰다. 이에 반하여 勞動生産性上昇率은 1960년대 이후의 낮은 人間資本投資로 말미암아 연평균 11.35%에 그쳐 1962~73년의 11.23%보다 0.12%포인트 상승되었을 뿐이며 勞動生産性上昇率과 實質賃金上昇率의 격차는 100.0 : 55.7에서 72.2로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1979년 이래의 不況으로 實質賃금이 하락한 1980~81년을 제외하고 1974~79년 간의 名目賃金, 實質賃金 및 勞動生産性的의 관계를 보면 그 크기는 각기 31.88%, 12.08%, 10.85%로서 勞動生産性上昇率이 實質賃金上昇率을 오히려 밑돌아 賃金코스트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社會的 덤핑에 始終 의존했던 한국의 수출은 그 유일한 기반을 잃어가게 되었다.

賃金코스트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것이 근로자계층의 地位向上을 가

저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식료품가격 특히 農水産食品의 가격상승이 농민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시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1974~80년을 통하여 從事者地位別로 보면 被備者의 비율은 평균 45.2%였음에 비하여 分配國民所得에 있어서의 그들의 分配比는 42.7%에 불과하여 所得 패리티율은 94.5이었고 農業生産者의 그것은 41.2%임에 대하여 農業所得의 비율은 20.6%에 불과하여 그 所得 패리티율은 50.0이었다. 그리고 1인당 實質 GNP에 대한 鑛工業月實質賃金의 비율은 1966~73년의 평균 16.2%에서 1974~81년의 12.8%로 작아졌으니 이를 年所得으로 환산하고 家口當 家族數를 4인으로 잡을 때 鑛工業勤勞者의 소득은 평균소득의 48.5% 수준에서 38.4% 수준으로 하락한 셈이다.

⑥ 內需의 機能變化

1962~73년 간의 수출은 逆進的 再分配의 深化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輸出商品의 貨幣供給 價格을 引下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內需를 촉진시켜 輸出을 위한 剩餘를 강력적으로 창조함으로써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逆進的 再分配가 계속되기는 하였지만 평균소득이 1975년 不變價格으로 1962년의 115,835원에서 1973년의 248,173원을 거쳐 1981년의 382,718원으로 3.3배 증가하고 製造業實質月所得도 같은 기간 중 25,776원에서 35,958원을 거쳐 56,300원으로 2.2배가량 커짐에 따라 生活水準도 절대적으로는 크게 상승하고 이것이 內需壓力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2년의 82.8%에서 1973년의 67.3%를 거쳐 1978년의 62.3%까지 하락했던 民間消費支出은 1981년에는 다시 67.2%로 커지고 政府消費支出까지 합한 國民消費支出은 1973년의 76.5%에서 1981년의 80.0%로 다시 커졌다.

보다 높은 생활수준 위에서의 內需壓力은 1966~73년 간의 식료품 특히 穀物價格에 先導된 소비자물가의 상승이란 패턴에서 벗어나 穀物 이외의 식료품, 光熱費, 被服費, 雜費 등 낮은 英鎊係數下에서의 消費對象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의 광범한 등귀와 都賣物價에 있어 原資材 및 資本財에 비하여 輸入依存度(import content)가 낮은 消費財의 현저한 가격등귀를 가져왔다.

民間消費支出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勞動生産性의 상승요인이 되고 동시에 不況에 대한 安全辨 구설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成長이라는 長期的 國民的인 課題遂行에 있어

〈表 17〉 物價上昇趨勢(1966~81년 평균)

	全都市消費者物價(%)						都賣物價(%)		
	穀物	穀物이외의 식료품	住居	光熱	被服	雜費	原資材	資本財	消費財
1966~73	13.6	11.8	10.7	10.6	9.1	10.6	7.8	7.8	9.3
1974~81	20.2	24.0	15.5	23.6	17.8	18.3	26.2	11.7	20.8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코 不利한 作用을 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이후의 輸出第一主義와 非人間資本優先政策은 消費支出의 계속적 하락에서 成長의 엔진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4년 이후 重化學工業의 國民經濟의 比重이 輕工業의 그것을 능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規模의 經濟」 실현과 관련하여 內需=國內市場에 대한 企業의 評價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電氣冷藏庫와 컬러TV, 自動車 등 重化學工業製品에 대하여 內需가 갖는 死活的 意義는 그 중 두드러진 事例라 할 수 있다. 內需市場開放, 內需喚起를 위한 制度的 補助裝置에 대한 企業의 요구가 키지고 1966년 이후 全經聯 등에서 주장하고 政府가 단기기간이나나 실시했던 穀價支持를 통한 農村購買力=內需增大가 1974년 이후에 있어서는 外穀輸入을 통한 生計費引下→內需振作으로 一變한 것은 이러한 構造的 變化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2) 國際經濟環境의 惡化

上述한 國內經濟與件의 기다란 변화에 추가하여 1973~81년 간의 國際經濟與件도 크게 변화하였다.

① 스태그플레이션의 世界的 蔓延

第4次 産業革命을 主導한 成長主力産業의 斜陽化로 시작된 第4次波動 不況局面은 國際通貨制度的 기본적 모순이 일으킨 世界인플레이션과 결부되어 1974년 이후 전체체를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 넣었으며 1974년의 第1次 石油波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1966~73년 간에 연평균 4.4%였던 OECD諸國 消費者物價上昇率은 1974~81년에는 12.9%로 커진 대신 成長率은 1964~73년의 연평균 5.1%에서 1974~81년의 2.1%로 떨어지고, 失業率은 3.0%에서 5.1%로 커졌던 것이다.

② 貿易伸張率의 鈍化

이와 같은 不況과 物價上昇 및 失業의 영향으로 1962~73년 간을 통하여 연평균 8.8%씩 증대되어 있던 세계수입은 1974~81년에는 3.5%로 줄어들고 수출증가율도 8.7%에서 3.3%로 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原油價格의 폭등은 石油輸出黑字國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國際收支를 악화시켜 각국이 國際收支防衛를 위하여 非關稅障壁을 비롯한 갖가지 貿易規制手段을 동원하게 되어 무역은 더욱 위축되는 한편 국제간의 貿易摩擦이 격화되어 갔다.

무역차량은 美·日, EC·日, 美·EC 등 선진국간 뿐만 아니라 先進國과 開途國, 그리고 開途國相互 간에도 격화되었는데 類型別로 보면 칫솔, 섬유, 의류, 피혁, 電子製品 등 勞動集約財의 경우와 같이 先進國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開途國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진출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와 둘째 自動車, 鐵鋼, 造船 등 資本集約財에 있어서처럼 선진국간에 있던 水平分業秩序가 무너진 데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세계 半導體, IC回路, 通

信裝備의 경우와 같이 高度尖端技術集約產業에서 이를 戰略的 基幹產業으로 육성하려는 先進國 간의 利害關係가 빚는 것으로 大別할 수 있다.<sup>(58)</sup>

### (3) 基本的인 發展戰略

外延的 成長을 命令經濟體制 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도와온 諸般國內外要因이 소멸되고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諸要因이 등장하기 시작했음에는 불구하고 1962~73년 간의 量的 成功에 도취된 경제정책당국은 外延的 成長과 命令에 의한 調整이라는 基本전략을 수정하지 않았고 1974년 이후 成長效率이 현저히 鈍化되자 한편으로는 命令을 細分, 多岐化하면서 이틀더 엄격히 하였고(whip) 다른 한편 보다 많은 外延的 成長要因投入을 위한 特惠的 支援의 강화(carrot)를 병행시켰다. 1972년 8월 3일의 緊急經濟措置 및 같은 해 10월 17일의 緊急政治措置는 이를 위한 불가피한 先行措處였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68년 이후의 農耕地縮少 및 그 이전부터 격화된 土地/人口比率 및 土地/GNP比率의 惡化에서 보듯이 外延的 成長要因 중 하나인 土地의 供給은 거의 완전히 非彈力化하기 시작하였고 1962~73년의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던 勞動力도 종래의 無制限供給에서 制限的, 彈力的 供給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外延的 成長要因 중 나머지 하나인 資本은 國內 및 海外源泉으로부터 절대량에 있어서는 1962년의 455.1억원에서 1972년의 8,743.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1970~72년 간의 증가율은 年평균 12.1%로 1962~69년의 44.6%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어 비록 절대액으로는 62~69년 평균 728.3억원에서 70~72년 평균 843.5억원으로 15.8% 늘었다지만 浦項綜合製鐵의 完工을 계기로 加速化되기 시작한 重化學工業化를 위하여 충분한 誘因과 支援을 주기에는 未洽하였다. 8.3조치는 外延的 成長戰略을 저해하는 이러한 隘路를 強力的으로 일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命令經濟特有的 政策조치였다. 한편 經濟成長과 도시근로자 및 농민의 經濟的 厚生の 계속되는 乘離는 한편으로는 農工間 配利의 개선과 實質賃金上昇 등으로 부분적으로 해소되어 갔지만 이들을 官主導型 先建設·後分配의 開發運動에 열성적으로 참여시키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다른 한편에 있어 勞動組合, 自發的 農民組織 등을 중심으로 도시근로자 및 농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權力과 所得의 강력한 再分配를 요구하게 되었다. 權力과 所得 및 富의 재분배는 국민경제의 安定的 成長은 가져올 수 있지만 政府에 의한, 정부를 위한, 政府의 權力과 富의 증진=祖國近代化라는 목표실현에는 오히려 逆機能을 하는 것이므로 強權的 命令經濟體制的 유지를 위해서는 10.17조치는 절대불가결한 것이었다.

外形을 중시한 政府의 膨脹政策이 불가피하게 가져온 企業의 不實化를 그 해 7월의 通貨量 3,924억원의 88.1%, 국내신용 13,530억원의 25.5%에 해당하는 3,456억원의 私債를 정

(58) 國際經濟研究院, 『國際經濟動向』, 제 5권 제11호, 1981.11.

리해 줌으로써 強力的으로 방지하려 했던 경제정책당국은 1974년 이후의 더욱 本格化된 重化學工業化를 자신의 의도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政策的 育成對象인 戰略產業 및 巨大企業에 대하여는 支援의 크기를 더욱 강화하고 育成政策에서 소외된 非戰略產業 및 中小企業에 대해서 이를 政策的 死角地帶에 방치한다는 不均衡支援政策을 쓰는 한편 命令不服從에 대한 處罰을 강화하였으니 栗山企業의 成長과 沒落은 그 端的인 事例라고 할 수 있다.

軍特有的의 코스트概念 缺如는 이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으니 海外建設活動에 대한 國策的 支援이 곧 그것이었다. 정부는 重化學工業化의 스피드 업이 빛은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하여 建設業의 海外進出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이는 外換危機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財貨의 國內供給이 수반되지 않는 所得의 流入과 技能工 등의 海外漏出로 外換인플레이션 및 賃金루쉬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誘發하였다. 1974~81년의 높은 물가상승 특히 1978년 이후의 그것이 石油를 비롯한 海外原資材價格騰貴로 인한 輸入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님은 이들 原資材에 대한 輸入依存度가 마찬가지로 높은 일본 및 자유중국의 事例와 비교하면 분명하다.<sup>(5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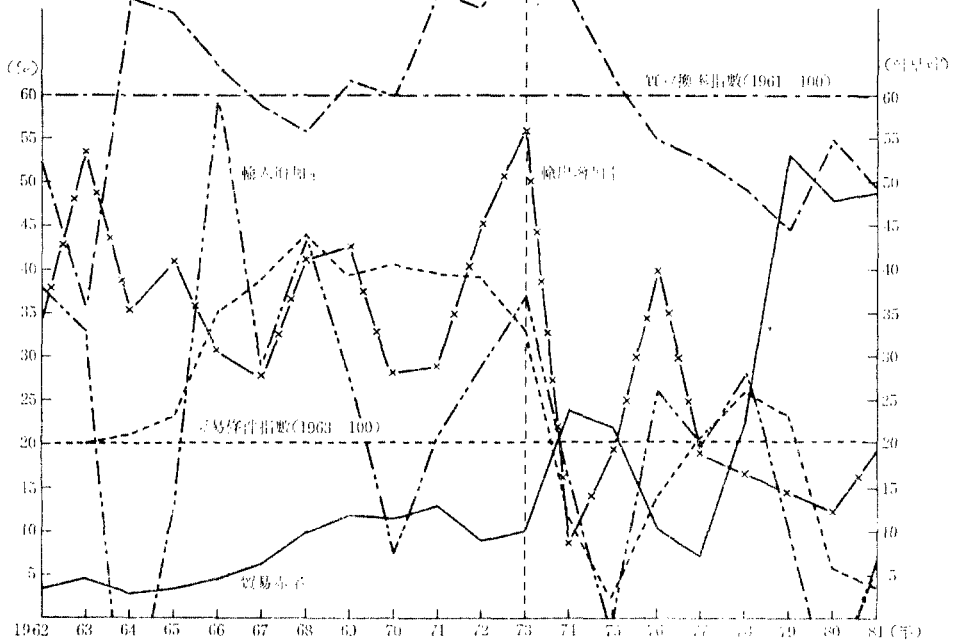
重化學工業化에 대한 政策努力은 이 기간 중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富國이란 鐵鋼, 自動車, 造船, 電子工業, 精油 및 石油化學工業 등 주로 重化學工業部門의 生産에서 세계 랭킹에 드는 것」이라고 大統領年頭記者會見에서 定義될 만큼 重化學工業化는 權力과 富의 상징으로 評價되었으며 모든 財閥그룹에 대하여 軍需工業을 비롯한 重化學工業建設에 참여할 것이 強요되었고 모든 政策特惠가 重化學工業建設과 관련되어 배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先行要件으로 가일층의 蓄積이 강조되었다. 이 기간 중의 總固定資本形成은 不變價格으로 총 320,016.7억원, 연평균 40,002.1억원으로 1966~73년 간의 연평균액 15,837.8억원의 2.5배가 넘는 크기였으며 GNP에 대한 그 비율도 31.3%에 달하였다. 이 처럼 늘어난 總固定資本投資 중 21.6%가 鑛工業에, 34.1%가 이를 지원하는 社會間接資本 및 建設業에 配分되었고 工業投資總額 69,600억원 중 66.4%에 해당하는 46,200억원이 重化學工業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重化學工業은 이 기간 중 317.0%나 그 生産액(不變價格임)을 증대시킬 수 있었고, 1981년의 그 비율은 56.8%, 附加價值 기준으로는 54.0%로 輕工業을 월등히 능가하게 되었고 소비재 : 자본재 비율은 1973년의 2.31 : 1에서 1981년에는 1.14 : 1로 줄어 호프만이 말하는 工業化의 第3段階에 들어서게 되었다.

(4) 韓國貿易의 破綻

(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한국경제의 成長潛在力枯渴은 國際經濟環境의 악화 및 國內的

(59) 1978~81년 간의 연평균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이 22.98%, 자유중국이 10.93%, 일본이 6.08%였다.





〈그림 1〉

인惡調整 등의 불리한 조건과 상승하여 성장율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해서도 불리한 효과를 미치기 시작했다. 이 기간 중의 한국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貿易伸張率의 鈍化

1973년을 고비로 수출증가율은 현저히 하락하여 1962~73년의 實質적으로의 연평균증가율이 38.7%였음에 대하여 1974~81년의 그것은 16.6%로 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세계수입에 대한 한국수출의 彈性値도 평균 4.1에서 1.9(1974~80)로 하락하였다. 그리하여 <그림 1>에서 보듯이 수출증가율은 1962년의 34.1%에서 1973년의 55.5%로 꾸준히 커져 오다가 1973년을 고비로 1981년의 19.4%로 급격히 하락하는 逆V字형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輸入增加率 역시 1973년의 37.1%를 경계로 더욱 급속히 줄어들어 1974~81년 간의 연평균증가율은 12.1%인데 이는 前期의 23.7%에 비하면 그 역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自給自足的 즉 閉鎖體系志向的 工業化가 軌道에 오르기 시작했던 1968년을 고비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수출에 대한 한국수입의 彈性値 역시 2.8에서 1.6으로 작아졌다.

輸出入貿易이 모두 彈性性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貿易赤字는 계속 커져갔으니

이 기간 중의 무역적자총액은 23,612.2백만달러, 연평균 2,952.0백만달러로 前期平均인 473.5백만달러의 6.2배를 넘고 있으며 1974년의 2,391.4백만달러에서 4,877.6백만달러로 遞增하고 있다. 다만 그 간의 GNP성장으로 GNP에 대한 貿易赤字의 비율은 12.9%에서 7.2%로 상대적으로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 기간 중을 통하여 貿易外受入은 총 27,764.9백만달러이며 支給은 26,365.2백만달러에 달하여 1,399.7백만달러의 黑字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81년에는 계속 赤字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의미있는 項目인 運輸·保險에서는 계속 적지 않은 赤字를 보이고 있으며 投資收益 역시 방대한 적자이며 海外建設業의 활동으로 雜用設項目만이 1965년 이래 黑字幅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을 보그스<sup>(60)</sup>가 말하는 國際經濟的 發展의 第2段階에 들어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2) 偏向된 貿易構造

「貿易은 國旗를 따른다.」(Trade follows the flag.)고 하여 국제무역에 있어 政治的 親疎가 交易兩當事國의 GNP 및 地理的 距離란 經濟的 要因<sup>(61)</sup> 못지 않게 강하게 작용함은 각기 영국 및 프랑스의 植民地였던 나이지리아와 프랑스領 西아프리카의 對英·佛貿易에서 킨들버거가 例示한 바 있지만<sup>(62)</sup> <표 18>에서 보듯이 1981년 현재 輸出入에 있어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62.0% 및 62.4%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輸出入 모두에 있어 排他的인 중요성을 갖던 美國 및 日本 두 나라의 비중이 수출에 있어서는 1962년의 64.8에서 1970년의 75.4%를 피크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1년에는 43.2%가 된 것과 輸入에 있어서는 1963년의 79.1%를 고비로 1973년의 69.0%를 거쳐 1981년에는 47.3%로 작아진 데 기인하는데 이는 그간의 輸出第一主義가 市場多邊化에 성공한 때문이다. 그러나 <표 19>에서도 알 수 있듯이 貿易結合度指數로 표시되는 洲別 및 國別로 輸出入偏向은 매우 커서 1980년 현재 輸出 및 輸入이 모두 아시아, 北美 및 大洋洲 특히 美國과 日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1980년에 있어 對美輸出은 平均密度의 1.98배, 對美輸入은 1.86배이며 對日輸出은 2.35배, 對日輸入은 3.76배에 이르고 있다. 세번째로 큰 무역대상국인 西獨의 그것이 0.51배 및 0.28배이고 세계수출의 45.1% 및 수입의 49.6%를 차지하는 유럽諸國과의 무역이 輸出에 있어 36.4, 輸入의 경우 19.1이란 結合度指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市場이 특정국에 편중되어 未開拓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諸國은 한국과 같은 小規模經濟國이 많고 經濟規模가 큰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도 소규모경제국적 消費者嗜好를

(60) T. Boggs, *The International Trade Balance in Theory and Practice*, 1922.

(61) J. Tinbergen, *Shaping the World Economy*, 1962.

(62) C.P. Kindleberger, *Foreign Trade and the National Economy*, 1962.

〈表 18〉 對先進國貿易推移

(단위 : 백만달러)

	미 국	캐나나	유 럽	(영국)	(독일)	(프랑스)	日 本	호주, N.Z.	합 계	총수출에 대할 %
輸 出										
1961	6.8	--	3.2	1.4	1.0	--	19.4	--	29.5	72.3
1966	95.8	5.8	34.0	5.1	7.0	1.0	67.5	1.4	204.3	81.6
1971	531.8	28.9	85.4	14.1	31.4	2.6	262.9	5.7	914.8	85.7
1976	2,492.6	314.1	1,313.9	253.9	398.3	88.7	1,801.6	110.0	6,032.1	78.2
1981	5,660.6	483.5	3,196.2	705.0	804.5	402.9	3,502.8	330.2	13,173.3	62.0
輸 入										
1961	143.4	2.3	47.6	5.2	24.9	1.5	69.2	6.7	270.7	85.6
1966	253.2	2.7	55.6	2.2	20.3	10.9	293.9	7.9	613.2	85.6
1971	678.3	39.0	262.4	58.2	73.7	71.8	961.9	41.3	1,938.0	82.8
1976	1,962.9	115.9	781.2	171.3	238.2	162.7	3,099.0	238.8	6,197.7	70.6
1981	6,049.7	530.7	2,345.2	397.9	671.8	279.8	6,373.6	993.2	16,292.3	62.4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表 19〉 輸出入結合度指數

	輸 出			輸 入		
	1961	1971	1980	1961	1971	1980
아 시 아	434.9	227.3	220.9	212.5	321.0	249.8
北 美	106.0	264.2	161.2	216.0	152.0	152.2
大 洋 洲	12.0	53.8	113.3	84.6	127.3	240.0
유 럽	16.8	15.9	36.4	35.5	21.8	19.1
中 南 美	1.4	4.6	45.3	26.0	7.0	29.8
아 프 리 카	--	51.9	91.8	3.0	6.3	7.9
美 國	140.3	360.9	197.7	258.0	205.1	185.6
日 本	1010.6	408.3	235.1	608.3	523.7	375.7
西 獨	27.3	27.9	50.5	73.1	25.0	28.2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갖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특히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므로 린더流의 貿易理論<sup>(63)</sup>을 믿는다면 유럽洲와의 낮은 貿易結合度指數는 輸出第一主義의 非貿易志向性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1974년이후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특히 유럽과 같이 1인당 GNP, 1인당 輸出, 輸入依存度 등이 모두 높은 유망한 市場에 대한 輸出結合度指數가 1976년의 34.9에서 1980년의 36.4로 거의 변동하지 않고 특히 세계수입의 자기 9.9%, 7.1% 및 6.3%를 접하

(63) S.B. Linder,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1961.

〈表 20〉 韓國輸出과 世界輸入의 構造的 乖離 (單位: %, %포인트)

	1961			1966			1971			1976			1979		
	한국	세계	乖離	한국	세계	乖離	한국	세계	乖離	한국	세계	乖離	한국	세계	乖離
0+1	23.6	17.9	+5.7	19.3	16.2	+3.1	8.0	13.1	-5.1	7.6	11.2	-3.6	8.0	10.6	-2.6
2+4	54.5	15.9	+38.6	18.7	12.6	+6.1	8.9	9.5	-0.6	2.5	7.5	-5.0	2.6	7.3	-4.7
3	5.7	10.2	-4.5	0.6	9.5	-8.9	1.1	10.7	-9.6	1.9	20.9	-19.0	0.1	20.7	-20.6
0~4	83.8	44.0	+39.8	38.6	38.3	+0.3	18.0	33.3	-15.3	12.0	39.6	-27.6	10.7	38.6	-27.9
5	1.4	6.3	-4.9	0.3	7.0	-6.7	1.4	7.2	-5.8	1.5	7.1	-5.6	3.5	8.0	-4.5
7	2.3	22.3	-20.0	0.8	25.7	-21.9	8.2	30.6	-22.4	1.8	28.6	-26.8	20.6	27.4	-6.8
5+7	3.7	28.6	-24.9	1.1	32.7	-31.6	9.6	38.8	-28.2	3.3	35.7	-32.4	24.1	35.4	-11.3
6+8	12.4	27.3	-14.9	57.3	29.0	+28.3	72.5	29.0	+43.5	68.5	24.6	+43.9	65.2	26.0	+39.2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는 西獨, 프랑스, 영국에 대한 그것이 각기 50.5, 23.9 및 52.4에 불과하다는 것은 市場開拓努力의 부족이란 政策的 缺陷보다는 1962~81년 간의 祖國近代化의 성격,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工業化의 構造, 生産과 輸出 간의 二律背反性에서 찾아야만 한다. 사실 1962~73년 간의 높은 輸出伸張을 가능케 하였던 여러가지 國內外的 要因 중의 하나는 종래 1次產品中心이던 輸出商品構造를 1963년 이후 2次產品中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外國의 輸入需要構造에 우리의 輸出供給構造를 접근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表 20>에서 보듯이 세계의 2次產品輸入構造가 1961년의 重化學製品 51.2% 대 輕工業製品 48.8%에서 1979년의 57.7% 대 42.3%로 더욱 重化學工業中心의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의 輸出商品構造는 23.0% 대 77.0%에서 27.0% 대 73.0%로 여전히 輕工業製品中心의이며 輸出商品의 需給乖離는 절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適應力의 限界는 國民經濟가 요구하는 主要한 産業 특히 戰略的인 基幹産業은 일단 이를 모두 건설한다는 全面的 工業化政策이 小規模經濟란 國民經濟의 制約下에서 필연적으로 結果한 것이었다. 1962년 이후 건설된 重化學工業의 경우는 自動車工業 또는 鐵鋼工業, 電氣機器工業, 허다한 非鐵金屬工業과 石油化學工業에서 보듯이 單一企業으로도 規模의 經濟를 실현시킬 수 없는 市場條件임에도 불구하고 힘과 富에 대한 前近代의 信仰이 複數企業의 성립을 유도하여 正常的인 경우는 물론 特惠的 輸出支援下에서도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없었던 것이다.

③ 輸出産業의 採算性惡化

交易條件, 實質換率, 實質賃金 등의 움직임에서 보아왔듯이 1962~81년의 한국수출은  $a_1 W_1$ ,  $R \leq a_2 W_2$ 란 조건을  $a_1 > a_2$ 란 制約下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W_1$  및  $R$ 의 政策的 引下 즉 社會的 덤핑(social dumping)과 換덤핑 그리고 金融·稅制面에서의 補助金덤핑에 크게 의존했

었다. 그러나 社會的 덤핑의 한계는 實質賃金이 1962년 수준을 회복한 1966년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되고 實質賃金上昇率이 勞動生産性上昇率을 앞지른 1974~79년간에는 절대로 불가능해졌고 換率 역시 國內外貨幣의 實質價値를 감안한 實效換率을 기준할 때 1976년부터는 오히려 원貨의 過高評價가 나타났으며 補助金덤핑 역시 相對關稅適用으로 이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강행된 輸出드라이브가  $W$ 의 다른 한 구성요인인 利潤( $W_k = W - W_i$ )의 감소까지 가져온 것은 당연하다.

물론 1974년 이전에 있어서도 輸出産業의 附加價値生産性=利潤率은 낮았고 이는 輸出을 見質로 얻어진 輸入에 의하여 전체로서 補償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패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하에서의 輸出採算性도 1974년 이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즉 1972~73년과 1974~81년 간의 平均値에 의해 이를 비교할 때 수출산업의 總資本經常利益率은 7.29%에서 1.85%로, 賣出額經常利益率은 6.55%에서 1.55%로 크게 하락한 데 반하여 內需産業의 그것은 4.90%에서 4.12%로, 그리고 5.25%에서 3.41%로 변화하여 수출산업보다 높은 이익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 1인당 純益도 수출산업은 197천원에서 368.4천원으로 1.87배 증가한 데 비하여 내수산업의 그것은 274천원에서 2,121.8천원으로 7.74배 늘어 1인당 純益隔差는 71.9에서 17.4(내수산업=100)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1인당 附加價値도 수출산업은 761.5천원에서 2,127.4천원으로 2.79배 증가한 데 비하여 내수산업의 그것은 1,291.5천원에서 3,626.4천원으로 2.81배 늘어 1인당 附加價値生産性隔差는 59.0에서 58.6으로 미미하나마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資本集約度를 보면 1981년 현재 수출산업은 16,140.9천원임에 비하여 내수산업의 그것은 26,125.1천원으로 내수산업의 자본집약도가 61.9%나 높다. 사실 수출산업의 자본집약도는 내수산업의 평균 48.1%에서 50.6%로 1974~81년 중 겨우 2.5%포인트 提高되었는데 이같은 資本集約度隔差는 1962~81년의 工業化가 比率優位를 바탕으로 輸出産業中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內需用으로 重化學工業中心으로 이루어졌고 이 같은 工業建設을 위한 外換所要를 輕工業이 賃金·換·補助金덤핑의 바탕 위에서 마련하도록 命命하였다는 政策意圖의 反映인 것이다. 그러나 1966~81년 간에 건설된 重化學工業은 높은 投入財輸入코스트를 11置하더라도 경험·기술의 부족에서 오는 높은 建設코스트와 運營코스트, 規模의 經濟未達이 주는 高코스트에 겹쳐 間歇的으로 있었던 輸入原資材價格의 등귀 및 그로부터 換率政策으로 인한 輸入원貨코스트의 상승 등으로 그 製品價格의 절대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계속적인 가격상승에 시달려 왔었다. 1974~81년 간에 全工產品價格上昇率이 276.7%였고 輕工業의 그것이 235.2%였음에 반하여 중화학공업제품의 가격은 335.9%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높은 가격상승율은 內需産業인 重化學工業에 그 高コスト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利潤을 남겨주는 것은 하였지만 코스트上昇을 전부 輸出供給價格에 전가시킬 수 없는 購買者市場의인 한국의 輸出市場性格下에서는 重化學工業이 量的으로 輸出增大에 도움을 못한 채 수출의 産生性악화에만 기여하게 되었다. 수출산업의 총자본경상이익율 및 매출액경상이익율이 1972~76년의 각기 4.64% 및 4.14%에서 1977~81년의 1.24% 및 0.96%로 급격히 하락한 것과 工産品輸出 중 重化學工業製品의 수출비중이 같은 기간 중 30.4%에서 42.1%로 급격히 증가한 사이에는 필연적인 因果關係가 있는 것이다.

#### ④ 貿易摩擦의 深化

1962년 이후의 輸出第一主義政策은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全面的 工業化를 위한 外換資源確保手段이지 비교우위에 입각한 特化를 함으로써 國際分業을 증대시키고 有無相通하는 가운데 世界厚生을 도모하고자 하는 目的價値가 아니었으므로 互惠(reciprocity)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고 이것은 모든 종류의 덤핑, 質의 劣惡, 集中豪雨式輸出에 의한 輸入國市場의 攪亂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重商主義貿易政策도 한국의 수출이 세계수출의 0.07% 수준이었던 1962~65년간은 물론 그것이 0.31% 수준에 달한 1966~73년 간에 있어서는 심각한 貿易紛糾를 조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비중이 평균 0.91%에 이른 1974~81년 간에는 國際經濟社會에서 심각한 反撥을 일으켜 第2의 日本으로 경계되고 각종의 報復措處를 自招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先進國으로부터 NTB의 적용을 광범하게 받아 輸出伸張이 뜻갈지 않게 된 것도 貿易政策 및 慣行의 重商主義的 本質 탓이다.

뿐만 아니라 重商主義는 相互依存의 세계를 前提하는 自由貿易主義와는 달리 自足的 工業化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무역을 恒久的인 目的價値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國別收支와 貿易構造面에서 互惠를 전제하지 않는다. 貿易利益은 自由貿易思想의 경우처럼 互惠的, 포지티브·섬 게임적인 것이 아니라 他國犧牲下에만 얻어지는 제로·섬 게임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1962~81년의 한국무역정책에도 충실히 도입되었다. 그 결과 한국무역은 전체로서는 방대한 赤字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國別收支에 있어서는 順逆兩面에서의 심한 불균형을 보였으니 그 가장 극단적이었던 것이 1978년의 事例이다. 즉 이 해의 한국수출은 12,710.6백만달러, 수입은 14,968.6백만달러로 전체로서 2,258.0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해의 수출입을 日本과 日本 이외의 世界로 나누어 보면 對日 무역에서는 수출 2,267.3백만달러, 수입 5,981.5백만달러로 3,714.2백만달러의 赤字를 발생시켰고 日本 이외 世界와의 무역에서는 수출 10,083.4백만달러, 輸入 8,987.1백만달러로 1,096.3백만

〈表 21〉 國別 收支

국 명	入 超			국 명	出 超		
	금액(百萬달러)	비율(%)	총적자에 대한 %		금액(百萬달러)	비율(%)	총적자에 대한 %
日 本	△2,870.8	182.0	△58.9	홍 콩	954.0	17.4	19.6
사 우 디	△2,425.2	313.4	△49.7	리 비 아	540.7	7.8	11.1
쿠 웨 이 트	△1,364.5	754.7	△28.0	네 델 란 드	235.7	28.1	4.8
호 주	△ 616.4	310.0	△12.6	노 르 웨 이	166.4	42.3	3.4
美 國	△ 389.1	106.9	△ 8.0	파 나 마	161.1	22.0	3.3
인도네시아	△ 284.8	513.4	△ 5.8	인 도	139.5	37.9	2.9
말레이시아	△ 172.8	830.2	△ 3.5	西 獨	132.7	83.5	2.7
필 리 핀	△ 134.4	202.5	△ 2.8	프 랑 스	123.1	69.4	2.5
오스트리아	△ 90.9	281.6	△ 1.9	파 키 스 탄	85.3	12.0	1.7
브 라 질	△ 84.8	472.8	△ 1.7	스 리 랑 카	83.5	0.6	1.7

資料：貿協, 『貿易動向』

달러의 黑字를 기록했다. 1백 20여개국과의 무역에서 모은 1,096.3백만달러의 黑字를 모두 投入하고서도 對日貿易赤字를 메꾸지 못하여 2,258.0백만달러의 逆調를 겪게 된 것이 이해의 實情이었다.

國別로 심한 順逆의 幅을 보이는 貿易收支를 1981년을 예로 살펴보면 『貿易動向』 1981年版의 지역별 수출입에 집계된 주요무역대상 74개국 중 順・逆調規模 1억달러 이상, 輸出入比率 50 以下 또는 200 이상, 그 해의 우리 貿易赤字 4,877.7백만달러의 1% 이상의 貿易差額이란 세 기준 위에서 順・逆의 幅이 큰 10個국의 國別收支를 나타낸 것이 〈表 20〉이다. 이 표에는 0.3백만달러수출에 10.7백만달러수입으로 100 : 3,666.9의 逆調를 보인 스와질랜드, 1977~81년간에 수출 70.9백만달러, 수입 11천달러로 100 : 0.016의 順調를 보인 시리아 등은 모두 극단적인 것으로 배제되었는데 100 : 80내지 100 : 120 사이에 머물러 順・逆調率이 過大하지 않은 국가는 西獨, 美國, 캐나다(109.8), 이탈리아(83.4), 케냐(109.9), 과테말라(98.1), 칠레(88.3), 멕시코(111.3) 등 10개국도 못되었다. 수출 127.0백만달러, 수입 94.3백만달러로 32.7백만달러의 出超를 기록하고 逆調규모가 100 : 74.2로 우리에게 약간 유리한 스웨덴에서 貿易逆調를 구실로 강한 수입규제를 가하는 한편 逆調是正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수출 483.5백만달러, 수입 530.7백만달러로 47.2백만달러를 入超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에서 不公正競爭, 市場攪亂을 이유로 그 역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한국이 빚는 무역마찰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端的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輸出增加를 比較優位=國際競爭力에 달기고 政策的 드라이브를 중지한다는 積極策의 강구는 祖國近代化政策이 갖는 重商主義의 性格 때문에 정부로서는 채택할 수 없고 그 결과 輸

入自由化率을 높인다는 消極策에 의해 糊塗하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經濟國의 기본정신인 重商主義路線에 위배된다. 輸入自由化政策을 천명하고 自由化率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수입의 비율이 1973년의 4.25%에서 1978년의 3.85%를 거쳐 1981년의 2.92%로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⑤ 外債累增

1974~81년간에 걸쳐 深化되고 있는 國內外的 矛盾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수단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外債 즉 현재의 政策過誤에 대한 책임을 將來世代에 轉嫁한다는 것이었다.<sup>(64)</sup> 그 결과 비록 GNP에 대한 비율로는 1973년의 7.8%에서 1981년의 4.6%로 줄어가고 있다지만 借款 및 直接投資導入도 1974년의 1,150.9백만달러에서 1981년의 2,905.3백만달러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또 이를 前後期 4년간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1974~77년 간의 총 6,135.6백만달러, 연평균 1,534.0백만달러에서 1978~81년 간의 총 11,386.7백만달러, 연평균 2,846.7백만달러로 1.9배 가까이 팽창하고 있다. 그리하여 차관에 대한 元利息 上환은 1962~65년의 총 14.8백만달러, 연평균 3.7백만달러에서 1966~73년의 총 1,293.5백만달러, 연평균 161.7백만달러를 거쳐 1974~81년에는 총 10,803.8백만달러, 연평균 1,350.5백만달러로 커져 1962~81년 간의 借款元利息 上환총액은 12,112.0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981년말 현재 公共借款 7,851백만달러, 商業借款 6,513백만달러, 합계하여 14,364백만달러의 外債殘高를 갖고 있다.

## V. 結 言

릭스는 20세기 2·4반기를 히틀러의 시대라고 할 歷史家들에게 20세기 3·4반기는 케인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었다.<sup>(65)</sup> 1961~80년의 한국은 이보다 더 강한 의미에서 「朴正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1961~80년의 한국사회는 크고 작은 모든 면에서 그의 先入見에서 비롯된 政策活動에 의하여 변형되었고 경제적 측면, 특히 工業化와 貿易은 더욱 구체적인 變容을 겪었다. 둘째 그 동안 한국의 GNP는 1975年不變價格으로 4.6배 증가하였는데 같은 규모의 경제성장을 하는데 日本은 1885~1934년의 만 50년이 걸렸고 美國은 1889/93~1940년의 그 역시 半世紀를 소요했다. 時間的인 의미에서도 1961~80년은 「朴正熙의 시대」로 기록될 수 있다.

(64) "Après moi de delugel!"(Louis XIV)

(65) J.R. Hicks,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 1974.



그러나 이 시대는 끝났으며 끝난 시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歷史的 評價가 내려져야 하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整地作業 구실을 한다. 이 시대는 試行錯誤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評價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입장에서 貿易이라는 戰略據點을 중심으로 1961~80년의 한국경제의 변화, 그 動因과 歸結을 살펴본 것이다. 다만 共同研究 증일부이기 때문에 연구대상기간을 1962~81년으로 1년씩 뒤로 옮기었다.

한마디로 말하며 貿易理論 및 政策에 있어 重商主義와 自由主義, 콜베르와 스미드는 前近代와 近代, 閉鎖社會와 開放社會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1962~81년의 우리나라 輸出第一主義는 이상의 분석에서 밝히고자 했던 바와 같이 스미드→리카도流의 比較優位原理에 충실한 開放社會志向의이며 互惠의인 自由貿易主義가 아니라 權力과 豊富=富國強兵을 유일한 目的으로 삼고 무역을 그 主要政策手段으로 삼은 콜베르主義를 그 性格 및 實踐에 있어 흡사하게 담고 있다. 輸出第一主義를 주요수단으로 한 朴正熙政府의 祖國近代化는 콜베르主義者들의 重商主義的 國民國家建設을 모방한 것이지만 그것은 細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았다. 첫째 역사상 한 體制의 모방은 수없이 있었으나 완전한 合同은 존재할 수 없었다. 時代的, 社會的 與件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그의 國民國家建設理念 즉 祖國近代化의 理念은 콜베르主義에서 직접 분파온 것이 아니었다. 콜베르의 富國強兵이란 理念은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普魯시아를 盟主로 하는 독일의 國民國家建設理念으로 받아들여져 19세기 普魯시아의인 變形을 하였고 이 같은 普魯시아의 富國強兵理念 및 實踐이 明治維新 후 日本의 國民國家建設에 援用되어 明治時代 日本的인 것으로 變形되고 그 후 다시 1930년대에 軍部 파시스트들을 중심으로 昭和維新의 理念으로 再生된 것을 朴正熙政府가 1961년 이후의 韓國風土에 移植하려 했던 것이고 그러한 執念이 1972년 10월 17일에 소위 「10月維新」으로 이름까지 그대로 갖고 表出된 것이다. 10月「維新」(restoration)이란 重商主義 絕對體制를 復古시킨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였다.

重商主義는 분명히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를 지배했던 理念이며 自由主義는 증상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등장한 18세기 후반 이후의 理念이며 증상주의이념과 정책이 뿌리내린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絕對主義, 사회성격은 閉鎖社會였으며 經濟體制는 命令經濟이었고 이에 대항하여 나타난 自由主義는 民主主義, 開放社會, 市場經濟를 지향한 것이었다. 어느 사회이고 歷史的 發展의 주요한 단계를 비록 단축시켜 가면서 경과할 수는 있어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日帝下 強權의 命令經濟의 짊어지지 않은 시기를 경험한 후 1945~60년間に 自由企業原理를 바탕으로 한 市場經濟體制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一轉하여 重商主義的 秩序를 수립한다는 것은 분명히 歷史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이다. 바이너

는 「중상주의는 치밀한 經濟分析能力을 갖추지 못한 實際的 人間의 主張이며 사실 重商主義時代에 있어서는 치밀한 經濟分析能力을 갖춘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sup>(66)</sup>고 했지만 역사의 흐름을 그러한 방향으로 바꾼 1961~65년의 한국에 대해서도 바이너의 말은 그대로 들어 맞는다고 보겠다.

---

(66) J. Viner, "Mercantilism," in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Social Sciences*, 1968.

## 〈 討 論 〉

## 金信行教授\*의 論評

本稿는 보기 드물게도 道德的이고 倫理的인 觀點에서 經濟現象을 透視함으로써 一貫性 있는 秩序를 찾아 보려는 試圖에서 그 意義와 價値가 評價되어져야 한다. 林教授는 특별히 이러한 方法論을 지난 二十年間 韓國經濟의 輸出第一主義의 內容과 性格究明에 援用하고 있다. 林教授의 結論에 따르면, 지난 二十年間의 韓國經濟는 마치 自由貿易을 指向하는 開放經濟政策을 遂行해온 것처럼 認識되고 있으나, 實은 重商主義的인 閉鎖經濟政策을 指向해 왔으며, 祖國近代化의 旗幟 아래서 실로 國民의 福祉는 外面당하였다. 韓國의 過去 二十年間의 貿易構造는 重化學工業部門의 輸出占有比가 增加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交易條件의 惡化, 外貨稼得率의 低下, 外債의 累增, 對外依存度의 深化 등 소망스럽지 못한 結果만 招來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韓國의 輸出第一主義는 결국 經濟의 效率性을 外面한 채 富國強兵의 國粹主義目的의 手段으로 轉落하고 말게 되었다.

事實, 林教授의 지적대로 輸出第一主義의 韓國經濟政策은 특히 經濟的인 效率性이라는 觀點에서 至大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量的 擴大만을 추구한 나머지, 重化學工業의 成就欲에 沒頭한 나머지, 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採算性의 문제를 도외시하여 보편적인 상식으로서의 比較優位의 개념이 忘却되어 버린 채 輸出目標達成에만 급급했던 韓國의 貿易政策은 反省을 촉구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輸出의 量과 質을 확대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課題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목표달성에 있어서보다 좀 더 精緻한 技巧(art)의 필요성이 절실히 된 시기에 접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輸出 특히 60년대의 그 성과는 실로 剩餘勞動力이 존재하는 韓國經濟에 있어서 剩餘를 噴出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며, 설사, 이러한 輸出第一主義가 林教授의 主張에서와 같이 經濟的 效率性을 重視한 自由主義의 標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輸出第一主義의 肯定的인 成果임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剩餘噴出의 效果는 단순노동력의 풍부성이 점차 감소해지기 시작하는 1970年 初半 또는 1970年 中半부터는 그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하여, 이로부터는 좀 더 精緻한 技巧(art)가 필요하기에 이른 것이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20年の回顧를 배경으로 林教授 역시 長래의 輸出運營에 關해 적절한 政策方向을 暗示하고 있다.

첫째, 期限附的인 補助내지는 擴大政策이 制度化되어야 하겠다는 점이며, 輸出構造의 高度化가 要請되고 80년대에 와서는 技術研究, 開發 및 人力投資에 아낌없는 投資가 先行되어 輸出競爭力의 鞏固한 밑받침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輸出擴大 支援政策보다는 幼稚産業을 보호 육성하되, 이에는 比較優位의 원칙이 적절히 援用되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 朴振根教授\*의 論評

경제발전과정에서 輸出部門의 功過에 대한 평가가 그 동안 주로 몇몇 計量分析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本論文은 그 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貿易部門이 이룩한 역할에 대한 좀 더 폭넓은 評價를 가능하게 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20년 간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새로운 視角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제시는 向後의 경제발전전략의 선정과 집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本論文이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존의 경제발전전략평가에서의 새로운 視角의 도입필요성에 同議하면서도 本論文이 강조하고 있는 그 구체적 분석과 평가의 內容面에서는 包括性과 客觀性 면에서 多少의 異見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本論文의 내용만으로는 과거 20년 간에 「경제성장」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전적으로 수출부문의 활동 이외의 그 어떤 餘他 부문에 의해 이루어졌고 오히려 수출부문은 그에 대한 次要인으로서 작용하여 왔다는 점이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20년 간에 경험한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自國利益最優先의 정책원리에 입각한 국제간의 生存競爭이라는 부인될 수 없는 現實의 與件을 감안할 때 輸入自由化의 不振을 크게 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연 어떠한 개발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의문은 과거 1945~60년 간에 존재한 것과 같은 類型의 (自由企業原理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가 만일 그대로 지속되어 왔을 때 현재의 상황과 무엇이 어떻게 相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한 것이다.

\*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 宋熙季博士\*의 論評

本論文은 과거 20年間 우리나라의 貿易伸張과 그 構造的 分析을 통하여 輸出第一主義에 대한 內容을 소개하고 그 性格을 구명하면서 그 간의 成果를 評價한 論文으로 흥미를 가지고 읽었다.

지난 20年間 輸出主導型 成長軌道를 달리면서 많은 問題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다. 外形의 成長에 치중한 나머지 成長의 內實을 다지지 못함으로써 輸出과 內需産業, 大企業과 中小企業, 輕工業과 重化學工業間的 不均衡은 물론 部品 및 中間財産業의 취약으로 産業構造가 輸入誘發型으로 歪曲되어 國際收支를 더욱 惡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特殊한 情境에서 安保問題와 經濟成長을 결부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며 어떠한 目的에서 시작되었든 간에, 가난에서 탈피하고 安定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60年代의 輸出第一主義의 經濟成長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第2의 經濟跳躍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실사 重工業의 過剩投資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 우리의 發展過程을 15~18세기의 重商主義와 다를 바 없다고 그 性格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比較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發展與件과 유럽의 15~18세기 當時의 時代與件을 좀 더 깊이 있게 比較分析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더구나 日帝의 強權的 命令時代를 거쳐, 解放後 1960년까지를 自由企業原理에 바탕을 둔 市場經濟, 그리고 1961年以後를 重商主義로 규정하여 時代的 흐름을 逆行한다고 結論짓기는 너무나 무리한 것 같다.

앞으로 産業構造의 最適化基盤을 造成해 나가기 위해서 순수한 自由市場原理와 靜態的 比較優位에만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인가? 現實적으로 完全競爭與件이 對內的으로도 對外的으로도 造成되어 있지 않다면 政府는 最適産業構造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役割을 해야 할 것인가? 經濟의 基本的인 運營을 市場經濟에 맡겨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즉 民間主導經濟運營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民間이 할 수 없는 部門에 대한 政府의 현명한 역할은 增大되어야 할 것이며, 開途國으로서 先進經濟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英國에 뒤떨어진 獨逸에서 비스마르크와 마이마르共和國時代(1871~1933)의 政府의 役割과 支援, 日本과 프랑스의 2次大戰以後의 政府의 役割과 支援은 우리에게 좋은 教訓이 되

\*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研究委員

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林鍾哲교수의 에리한 分析과 이 나라 經濟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해 마지 않으며, 이 論文을 통하여 스스로 배우고 깨달은 바가 컸음을 아울러 말해 두고 싶다.

### 林鍾哲教授의 答辯

이 論文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첫째 貿易을 主導한 原理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었고 結論은 그것이 리카도流 自由貿易主義나 리스트流 保護貿易主義와는 전혀 다른 「가능한 최대한의 自給自足」을 추구한 重商主義 특히 콜베르主義와 가장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이 論文은 1962~81년 간에 99.4배(수출의 경우 387.8배) 커진 무역의 成就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무역의 지도원리가 비교우위 아닌 최대한의 자급자족이었으므로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 그리고 수출증대의 原動力은 단순한 低賃金·良質勞動이 아니라 逆進的 再分配에 의해 政策的으로 조성된 低賃金(=低輸出코스트+內需壓力除去)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論文이 밝히고자 한 제 2의 문제점은 1962~81년의 韓國經濟成長이 輸出이 아니라 國內投資에 의해 主導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論理的, 理論的, 比較經濟史的으로 당연한 結論이지만 이 論文에서 計量的 뒷받침이 부족하였음은 自認한다.

끝으로 플로어에서 1962~81년의 韓國經濟體制가 重商主義가 아니고 오히려 國家獨占資本主義라고 해야 한다는 反論이 있었지만 筆者는 어떻게 資本主義를 定義하든 1962~81년의 한국경제는 市場이라는 機構를 가진 經濟體制가 아니고 命令經濟였으므로 資本主義가 아니었다고 본다. 그리고 獨占資本主義가 더 한층 강대해져 經濟的 寡頭體制가 國家公權力까지도 지배하는 단계가 國家獨占資本主義인데 1962~81년의 한국경제는 經濟權力이 國家를 지배하기는 고사하고 官給性經濟下에서 企業의 自由는 말할 것도 없고 財產權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였으니 이를 國家獨占資本主義라고 定義하는 것은 偏向된 小兒病的, 思考停止症이다.